

50년 뒤 한국, 노인비중 세계 최고

통계청 '인구 현황 및 전망'

50년 뒤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1.5배 늘지만, 한국의 인구는 되레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례없는 저출산의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1000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늘었으며, 2067년에는 103억8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67년 3900만 명

세계 인구 1.5배 늘 동안 한국은 4분의 3으로 줄어 65세 이상 노인 47%로 '썩' 총부양비는 2배 육박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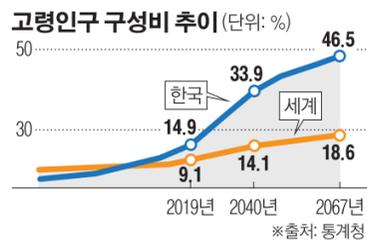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이미 둔화세가 뚜렷하다. 2015~2020년 중 세계 인구는 1.1% 증가했으나, 한국은 0.3% 느는 데 그쳤다. 2030~2035년에는 세계 인구가

0.8% 늘지만, 한국은 0.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올해 12.4%에서 2067년 8.1%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 시기 세계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19.6%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도 세계는 올해 65.3%에서 2067년 61.7%로 소폭 줄지만, 한국은 72.7%에서 45.4%로 급락한다. 유소년·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주된 배경은 출산율 감소다. 2015~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올



해 한국(14.9%)이 세계(9.1%)보다 1.5배 높지만, 2067년이 되면 그 격차가 2.5배(한국 46.5%, 세계 18.6%)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67년 한국의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120.2명으로 세계(62.0명)의 2배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110.3명),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7.1명)이지만, 2067년에는 두 지표에서 모두 한국이 압도적인 1위가 된다.

그나마 남북한이 통합되면 인구 감소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2020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1명이다. 남북한 통합 시 총인구는 올해 7700만 명에서 2067년 6500만 명으로 줄지만, 생산연령인구 구성비(2067년 51.4%)가 50%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 총부양비는 100명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조국 "딸 논문·장학금, 펀드 관여한 바 없다"

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주변에 엄격하지 못해 깊이 반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각종 의혹에 대해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과분한 기대를 받았는데도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조 후보자는 그러나 딸 논문과 장학금,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칭, "무엇보다 크게 느낀 건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제 말과 행동에서 생겼다는 뉘우침"이라며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철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갑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에게 요구한다.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다'고 공식적인 질문을 했고, '펀드 투자가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5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서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원익회'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저희는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직 사퇴 요구에는 "비판의 취지를 따갑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文케어로 급여비 증가 전보공 부채비율 5년後 '2배 ↑'

올해 74%서 2023년 133%로

5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올해 부채는 1조8000억 원 늘고 자본은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내년 91.9%, 2021년 102.0%,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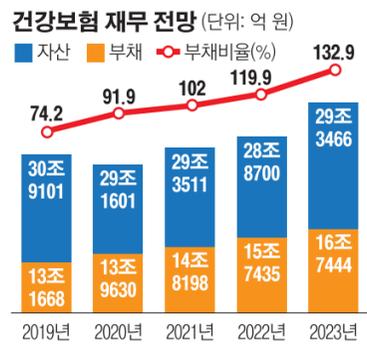
전보공단은 부채비율 증가가 적립금

(20조 원) 소진에 따른 자산 감소와 회계상 부채인 총당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보공단 관계자는 2일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고 지원 비율이 14.0%로 전제돼 있어, 향후 국고 지원이 확대되거나 보험료율이 계획대로 오르면 부채비율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다.

이들 공공기관 자산은 내년 792조 원에서 2023년 935조 원으로, 같은 기간 부채는 498조9000억 원에서 586조3000억 원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소폭 오르지만 내년부터 167~16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 총자산 대비 비율도 향후 5년간 48%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증가의 주된 배경은 회계기준 변경과 한국전력 그룹사 및 전보공단의 실적 악화다. 한편 그룹사는 연료비,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올해 부채가 전년보다 12조3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車업계 8월 판매 '후진'

현대차 6% 줄고 기아차 2% 증가

완성차 5사의 8월 국내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줄었다. 현대차 판매가 6.1% 감소한 반면, 해외에서 선방한 기아차는 판매가 소폭 늘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8월 완성차 5사의 국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7738대)보다 2.78% 감소한 63만9435대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5만2897대, 해외에서 31만148대 등 총 36만3045대를 판매했다. 내수와 해외 판매가 각각 9.7%와 5.5% 줄어 전체 판매 역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내수는 코나와 투싼, 싼타페 등 주력 SUV 판매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 해외의 경우 신형 쏘나타 출시를 앞두고 대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아차는 국내 판매가 감소한 반면 해외 판매가 증가하며 선방했다. 지난달 기아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4만3362대에 머물렀다. 반면 해외 판매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8만5509대에 달해 전체 판매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한국지엠(GM)의 국내외 판매는 2만4517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판매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엔 LPG 모델 확대 효과를 누렸다.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9.3%나 증가한 7771대를 기록했다. 수출(5216대)이 7.3% 감소했지만 내수 확대가 이를 만회해 전체 판매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1만2987대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경쟁 모델이 급증하면서 판매가 추축했다. 지난달 내수에서 8038대, 수출로 1977대를 판매해 총 1만1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한 규모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3분기는 1분기와 함께 전통적 판매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일부 증가하면서 국내 판매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인재 육성은 롯데의 미래… 투자 아끼지 말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현장 방문

신동빈 롯데 회장이 2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 회장은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은 결국 롯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오산캠퍼스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워낼 최고의 시설로 꾸미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롯데는 지난달 초부터 1900여억 원을 투자해 오산캠퍼스 재건축에 나섰다. 롯데는 2021년 완공되는 오산캠퍼스 내에 학습동과 강의동, 숙소동 외에 그룹의 지나온 발자취를 담은 특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로 롯데 역사관이다.

롯데 역사관은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의 창업부터 그룹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공간이다. 연면적 1만7192평 규모의 오산캠퍼스 내 롯데 역사관은 825㎡ 규모로 조성된다. 롯데 역사관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영철학과 여력을 비롯해 창업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롯데의 모습 등 실제 사료를 전시한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창업주 정신 잇는 역사관 조성 그룹 탄생부터 성장까지 한눈에 인재경영 발판 위기 극복 의지

신 총괄회장의 소장품과 경영 일화를 모형·영상으로 재구성한 ‘기업이념’과 회사의 성장사를 보여주는 ‘역사’,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분야’, ‘사회공헌’, ‘비전’ 등 5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사명의 기원이 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940년대 문고판도 함께 전시되며 신 총괄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지니고 있던 전 재산인 ‘83엔’, 신 총괄회장이 쓰던 집무실 집기 등도 역사관에 배치한다. 또 롯데제과가 국내에서 처음 만든 민트껌인 ‘쿨-민트껌’, 지난해 출시 60주년을 맞은 ‘칠성사이다’의 초창기 병, 당시 껌 판매대와 신문광고 등 추억의 자료도 볼 수 있다.



신동빈(맨 오른쪽)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현장을 찾아 조감도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단순한 전시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시연도 가능하도록 꾸민다. 관람객이 원하는 바를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롯데 역사관은 창업주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신 회장이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오산캠퍼스를 방문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롯데의 창업정신과 DNA가 잇는 공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은 그간 경영권 분쟁에 이은 신 회장의 구속 등 적지 않은 위기를 겪어왔다. 신 회장이 오산캠퍼스에서 인재 경영을 강조한 것 역시 위기를 극복할 창업주 정신

으로 무장하지는 속내를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장에서 진행된 ‘오산캠퍼스 첫삽뜨기’ 행사에 참여해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윤종민 경영전략실장, 정부옥 HR혁신실장, 롯데인재개발원 전영민 원장,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롯데정보통신 마용득 대표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갖춘 예정이다. 소규모 그룹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아이디어 허브(Idea Hub)’, 파트너와 협업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듀오 라운지(Duo Lounge)’, 휴식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소셜 라운지(Social Lounge)’, 개인 맞춤형 학습에 최적화된 ‘포커스 스튜디오(Focus Studio)’ 등이 대표적이다. 또 3D 프린터, 가상현실(VR)을 통한 첨단 디지털 학습공간도 들어선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그룹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일류 신한’ 외친 조용병 회장

“일등은 남과 경쟁하고 일류는 자신과 싸워 승리”

신한금융 창립 18주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불거진 파생금융상품(DLS·DLF)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DLF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창립 18주년 기념사에서 “고객이 납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금융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신한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하자”며 “고객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일류 신한’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의 해외 금리파생상품 손실 논란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보이콧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신한은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고 있는지’, ‘금융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류 신한’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와 인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며 언제나 고객을 보호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만 ‘일

류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우선 그룹사 차원에서 고객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그룹의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합리화 등 고객이 납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룹 부동산 협의체’, ‘인공지능 네오(NEO)’ 등 현재 추진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한의 정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인정’ 외에도 그는 일류 신한외의 기준으로 사회의 존경과 직원의 자부심을 꼽았다. 조 회장은 “우수 기

술력을 가진 벤처, 중소, 퓨처랩(Future's Lab) 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신한이 ‘혁신금융’이라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며 혁신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룹 전반에서 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피씨오프제(PC-Off) 시행, 회의·보고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S.A.Q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과도한 리딩뱅크 경쟁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인식한 듯 “일등은 남과 경쟁하지만 일류는 자신과 싸워 이긴다”며 “원 신한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일류 신함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참다한홍삼 추·석·맞·이

할인 대전

2019.8.23~9.23

15만원 이상 구매시 **5%**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

5+1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49,500원**

5+1

클래식
55,000원 **49,500원**

5+1

홍삼 절편 (120g)
55,000원 **49,500원**

*은, 오프라인 동시진행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번호(1661-0308) www.chamdahan.com

삼성-LG, 인공지능 '8K TV'로 中·日 추격 따돌린다

미리 보는 '韓·中·日 대전'

삼성,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
LG, AI 모터 탑재 세탁기 출격
中 물량공세·日 기술전제 맞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초격차 벌려

한·중·일 3국이 6~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중 하나로 꼽히는 'IFA 2019'에서 향후 가전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다. 중국은 800개가 넘는 업체가 행사에 참여하고, 일본은 스타트업 간 기술을 공유하는 부대 행사에서 혁신 파트너 국가로 선정됐다. 이들에 맞서 삼성, LG는 향상된 AI(인공지능) 엔진이 적용된 8K TV, 프리미엄 생활가전 등을 전시해 '글로벌 가전시장의 강자'란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도권 초강화 전략, 중국의 물량 공세, 일본의 혁신 기술이 상호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언론과 관람객들의 시선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최대 참가 업체 '중국'·IFA 넥스트 첫 글로벌 혁신 파트너 '일본' = 올해 IFA에 참여하는 중국 업체는 882개로, 전체 참가 기업 및 관련 단체(1856개) 중 무려 48%나 차지한다. 우리나라 참여 업체(89개)와 비교했을 때도 약 10배에 달한다.

중국은 이번 IFA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이센스, TCL, 하이얼, 창홍 등 TV 업체들은 양산용 8K TV를 전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웨이는 5G(5세대 이동통신)로 연결된 스마트 TV와 자체 스마트폰 칩인 기린 990



IFA 2019

날짜 9월 6~11일
장소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
참가업체 52개국 1856개 기업(지난달 30일 기준)

삼성·LG IFA 주요 전시 제품

삼성전자 - 8K QLED TV (65·85·75·82·98형)
- 맞춤형 비스포크,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 무선청소기 제트, 공기청정기 큐브

LG전자 - 88형 8K 올레드 TV,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 인공지능 DD(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적용 드럼세탁기

① 삼성전자,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로 유럽 시장 공략 ② LG전자, 인공지능 모터 ③ LG전자, 세계 최초 8K 올레드 TV 예약 판매 ④ 삼성전자, '청정가전' 3총사로 유럽시장 공략

프로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화웨이의 CEO 리처드 위는 오프닝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일본(25개)의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참가 업체 규모가 작다. 최근 TV 외에 다른 가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진 데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IFA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IFA 주최 측이 진행하는 행사인 'IFA 넥스트(NEXT)'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글로벌 혁신 파트너의 첫 번째 국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가전 앞세운 삼성·LG =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가전을 통해 우위를 가져간다. 삼성·LG는 올해 IFA에서 각각 8K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플라인업과 88형 8K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전시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8K 관련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8K TV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

동영상을 8K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AI 기술이다"라며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삼성, LG와 중국 업체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는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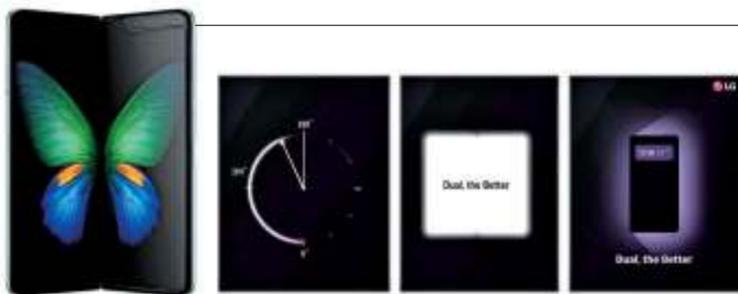
△무선청소기 제트 △공기청정기 무풍 큐브 등을 전시한다.

LG전자는 인공지능 DD(다이렉트 드라이브)모터가 적용된 드럼세탁기를 공개한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DD모터가 의류 재질, 무게를 분석해 고객에게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시한다. 제품 내부에 있는 리프터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스테인리스로

변경하는 등 내구성도 강화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이 고가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함께 중국 업체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고(高)가성비 제품을 내세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왼쪽)와 LG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티저 영상. 약 15초 분량의 이 영상은 신제품이 '프리스탑 힌지' 기술을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 사용할 수 있고, 전면 알림창을 탑재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폴드'나 '듀얼'이나 삼성-LG 독서 격돌

올해 IFA는 가전 제품 위주였던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이 크게 주목받을 공산이 크다. 삼성, LG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침체에 들어선 스마트폰 시장에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폼 팩터(form factor) 신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전시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올해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등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삼성전자는 출시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이후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개월 간 철저한 분석과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갤럭시 폴드는 내구성이 더욱 강화됐다. 폴더블폰을 펴고 접을 때 외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힌지(경첩)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을 최소화했다. 이물질이 들어 가더라도 디스플레이 훼손을 막기 위해 새로운 메탈 층을 추가했다. 갤럭시 폴드에 적용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최상

단 화면 보호막은 베젤(테두리)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사용자가 보호막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그레이드 된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디스플레이로 변화하고,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LG전자는 5G폰 LG V50 씽큐의 후속작인 V50S(가칭)을 공개한다. V50S는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듀얼 스크린 기능을 지원한다. 새로운 듀얼 스크린은 화면을 덮은 상태부터 완전히 펼친 상태까지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 기술이 적용됐다. 두 화면이 반으로 닫힐 때, 닫힌 화면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는 전면 알림창 기능도 도입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와 오포의 산하 브랜드 리얼미 또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IFA에 전시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2위 업체인 화웨이는 폴더블폰 메이트X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30프로의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넘어라 고려대 넘혀라 고대사

여기 **고려대**에서
뜨거운 열정과 거침없는 도전으로
모든 학문과 시대의 경계를 넘어라!
지금 고대인이 되어
끊임없이 내일을 질문하며
인류의 리더로 그대의 무대를 넓혀라!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19. 9. 6. (금) 10시 ~ 9. 9. (월) 17시
- 세종캠퍼스 : 2019. 9. 6. (금) 10시 ~ 9. 10. (화) 18시
- 접수처 : oku.korea.ac.kr

한수원, 사우디와 스마트 원전 합작사 만든다

이달 IAEA 총회서 MOU 체결
대형 원전보다 비용·시간 절감
국산 기자재 공급망 활용 합의
'일감 가뭄' 원전 업계에 단비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우디아라비아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SMART·스마트)' 건설 사업을 위해 합작사를 설립한다.

2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K.A

.CARE는 사우디 현지에 스마트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의견을 모았다. MOU 체결식은 이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세계원자력기구(IAEA) 연차총회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한국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소형 원자로다. 2012년 소형 원자로 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했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전성도 높은 게 장점이다. 낭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동처럼 인구 밀

도가 낮은 지역에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도 유용하다.

사우디 내 원전 인허가권을 가진 K.A.CARE와 MOU를 맺으면 사우디 스마트 원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이번 MOU에서 한수원과 K.A.CARE는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 스마트 원전 건설을 추진할 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자금 부담은 MOU 체결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SPC를 중심으로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취득, 비용 산정 등 스마트 원전 건설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도 함께 조성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스마트 원전 건설이 성사되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일감 가뭄'에 빠진 원전 선행 주기 사업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한수원 등이 사우디 스마트 원전 건설비는 두 기 기준으로 2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일자리도 1만 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과 K.A.CARE가 MOU에서 국산 기자재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우디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 요르단과 튀니지 등 인근 국가에도 스마트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사우디 측의 '밀당'이다. 한국과 사우디는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이번과 유사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나, 체결 직전 사우디 측에서 연기를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MOU 시점을 무기로 분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같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안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박양우 장관, 베트남 관광객에 꽃다발
트남인 관광객 대표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하반기 관광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현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공황 현행 행사에서 베트남인 관광객 대표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있다.

경기 부진에 어음·수표 사용 '폭'

상반기 17조3000억 결제
전년 동기보다 16.2% 급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도 영향



정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올 상반기 어음·수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율도 주춤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현금 이외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일평균 79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1조4000억 원) 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2017년 상반기(-1.0%) 이후 첫 감소세로 2013년 상반기(-2.4%) 이후 12분기(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

어음·수표 결제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6.2% 급감한 17조3000억 원을 기록한 때문이다. 이는 2012년 상반기 13.6% 감소 이후 14분기(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남택정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작년 9월 정부가 상생결제 이용을 의무화하면서 어음 외에 현금이나 전자외생 매출채권 등 상생결제수단을 통한 거래가 늘었다. 여기에 경기활동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기위축 영향에 잘나가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일평균 사용액 증가율도 축소됐다. 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보다 5.7% 증가하는 데 그친 1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7.9% 증가보다 증가세가 줄어든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전자상거래,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7.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카드사 법인대상 영업활동 축소로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체크카드 역시 6.2% 증가한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공제율 30%의 높은 세제 혜택과 청구할인(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등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증가세가 꾸준했지만, 작년 하반기 증가율(8.1%)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소재화 경향은 여전했다. 개인의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실적 1조4000억 원을 소비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3.0%)와 공과금 및 개인·전문서비스(9.3%), 의료 및 보건(9.0%), 교육(7.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조성욱 "갑을관계 불공정행위 해소 역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상생협력 체계 구축 유도
기존 재벌개혁 기초 유지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마·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벌개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재벌개혁 기초를 유지하겠다"면서 "다만 공정위 소관 법률 내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을 놓고 야당 쪽에서 날선 비판이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면서 "한화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한화에 준법경영을 강조해왔고, 특히 한화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데 일조했다"고 반박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부, 지반침하 예방 나선다

국토부, 지하안전 매뉴얼 마련

정부가 지반침하를 지난해 338건에서 2024년까지 169건으로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지하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반침하는 2014년 69건에서 2016년 255건, 2018년 33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기간을 늘리는 한

편 협의 시기 조정과 협의 완료 후 굴착·보강공법 변경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등을 확보, 2024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도도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100%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15개 특·광역시만 구축돼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종근당홀딩스 제재

지주사 전환 후 창투사 지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

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씨케이디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주식 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행위 역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2년 간 유예기간 부여)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조국 “금수저·강남좌파 맞지만 제도개혁 꿈 꺾”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회견 자청

“과분한 기대 받았지만 큰 실망 안겨... 학생·국민에 죄송”
딸 논문 의혹에 “현재는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교수 재량”
딸 서울대 장학금 수령엔 “서울대 동창회에 신청한 적 없다”
“사모펀드 일절 관여 안해...5촌 조카 귀국해 진실 밝혔으면 장관 임명된다면 검찰에 가족 관련 수사 보고 금지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실상 무산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방식을 택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반박과 해명의 자리를 갖고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어떤 질문도 사양하지 않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개인적 소신을 삶에 관철시키지 못해... 안이했다” =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신과 가족을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저는 서게 됐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다”라며 “좌초해선 안 되는 일, 그 누군가는 서울 퍼런 칼날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금수저, 강남좌파가 맞지만 제도를 좋게 바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딸 논문 의혹에 “10대 고교생 아이 비난은 과도” = 조 후보자는 딸이 단국대의 대외과학연구소에서 ‘학부형 인턴십 프

그램’으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하에서 이리저리 뛰어 인턴을 구한 것을 두고,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제도가 들어오고 당시 정부나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을 대대적으로 권장했다”며 “지금은 그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모펀드 원지 잘 몰랐다” =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5촌 조카는 저희 집안 장손이라 제사 때나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보는 관계”라며 “원래 있던 주식을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집안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이번에 공부했다”며 “펀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했다.

◇ “검수사, ‘제가 언급하면 안돼... 법·증거 따라 이뤄질 것’ =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청문 과정에서 압수수색하는 건 제가 언급해서는 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에)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충현 기자 lamuziq@

文대통령 “태국 가속기사업 참여 희망”

태국 총리와 방콕서 정상회담 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준비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빠르웃 쩌안차 태국 총리는 과학기술·신산업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10면

양국 정상은 이날 태국 방콕의 총리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오늘 회담에서 빠르웃 쩌안차 총리와 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4.0’ 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해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

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학과 나노 산업의 핵심기술인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용 원자로, 과학위성 등 순수·응용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해온 국·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초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한류 공동체 형성 △공정한 자유무역질서를 위한 국제공조 등 3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HUI

올 추석엔 오후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될 거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아름다움
오후추석 선물세트

1) 오후프라임 어드밴스 3종 선물세트
*정품: 스킨소프너 150ml, 에멀전 130ml, 크림 25ml
*중장: 스킨소프너 20ml, 에멀전 20ml, 마이크로필 5ml, 앰플세럼 10ml, 포어 트리트리먼트 마스크 20ml, 앰플 마스크 3-STEP 1매

2) 오후더퍼스트 제너추어 2종 선물세트
*정품: 스킨소프너 150ml, 에멀전 140ml
*중장: 앰플세럼 22ml, 스킨소프너 20ml, 에멀전 20ml, 크림 인텐시브 7ml, 앰플 어드밴스드 5ml, 폼 클렌저 50ml

· 선의 유망 제품임 제3의 입찰은 오후 제품을 통해 만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7007 www.ohui.co.kr

인도로 간 '폭스콘' '돈·명분' 다 잡는다

4년 전 진출...공장 추가 예정 소외된 여성 인력 적극 활용 인건비·생산성 두 토끼 잡아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을 피해 일찌감치 인도에 생산기지를 연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 폭스콘이 특별한 전략으로 현지 생태계를 순조롭게 확장하고 있다.

폭스콘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외자 기업 우대 조치를 등에 업고 4년 전 인도에 첫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현재 2개의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폭스콘은 철저한 현지화로 인도 현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일당 4달러(약 4800원)의 낮은 인건비와 전체 인력의 90%를 여성으로 채우는 등 저비용과 여성 일자리 창출로 수익성도 높이고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폭스콘의 경영 방침과도 맞아떨어졌다. 폭스콘 인도 법인의 조시 폴저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은 좋은 사업 원칙"이라며 "우리는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중국 이외) 다른 장소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폭스콘이 인도에 초점을 맞춘 배경을 설명했다.

폭스콘은 2015년 인도 남동부 산업 밀집 지역인 벵갈루루와 첸나이 인근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 특별경제구역에 자사 첫 인도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은 약 1만5000명의 근로자 중 90% 정도가 여성이다. 폴저 대표는 "인도 제조업체 대

부분이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 목표를 맞추기가 쉬웠다"며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공장은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통근 버스와 기숙사 제공 등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여성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특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한 근로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월급은 약 9000루피(약 15만 원)이며 통근버스와 27기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부대비용이 들긴 했으나 인건비가 중국 공장 근로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폭스콘은 인도에서 비용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스리시 공장에서는 주로 인도 내 베스트셀러인 샤오미의 스마트폰 등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의 구형 '아이폰X'의 시험 생산에 착수했다. 이는 애플이 처음으로 인도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아이폰이 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다.

폭스콘의 두 번째 인도 공장은 스리시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스리페룸 부두르에 있다. 이 공장의 고용 인원은 1만2000명에 달한다. 폴저 대표는 "2023년까지 두 공장이 훨씬 크게 확장되는 것은 물론 공장 두 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콘 인도는 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디스플레이와 회로기판 등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대중국 4차 관세, 자국민에 직격탄"

섬유·신발 등 소비재 대거 포함 "美 가정 年 1000달러 비용 추가" 소비자심리지수 3년 만에 최저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제4차 대중국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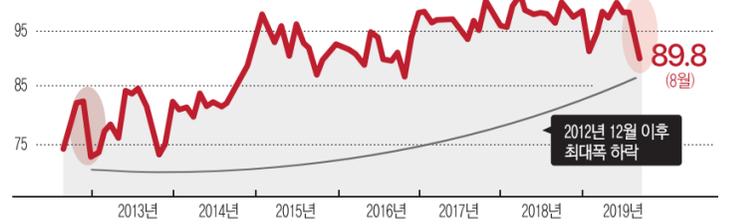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체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일(현지시간) 발동한 4차 관세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CNN방송이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부터 1120억 달러(약 136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비재의 3분의 2 이상이 높은 관세 장벽을 맞닥뜨리게 됐다.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약 87%, 신발의 52%가 관세 폭탄을 맞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이디어 브러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분명히 소비재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동한 관세는 12월 15

미시간대 집계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출처: 블룸버그



일로 연기된 또 다른 라운드와 함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스마트폰과 노트북, 장난감 등 약 15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2월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브러헤 이코노미스트는 "12월 발동할 관세는 아주 위험하다"며 "이전 라운드와 달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중국은 12월 관세 대상 품목에 있어서 미국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그동안의 관세 만으로도 미국 가정에 연평균 600달러의 비용이 추가됐다"며 "이번과 12월 관세까지 발효하면 그 비용은 1000달러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그동안 홀로 상승장구했던 미국 경제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한 달 전 나온 속보치인 연율 2.1%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1분기의 3.1%에서도 하락한 것이다.

미시간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국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89.8로 전월의 98.4에서 하락하며 2016년 10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소득 성장세 둔화와 기업 투자 지연, 관세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최수들도 떨게 한 美 허리케인

바하마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플로리다주 코코아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경찰의 감시 속에 주민에게 나눠 줄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차에 싣고 있다.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도리안은 풍속이 최고 시속 295km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안의 플로리다 강타 예고에 폴란드 방문도 취소했다. 코코아/EPA연합뉴스

동남아마저... GM, 태국서 300명 감원

글로벌 車 판매 위축되며 현지 인력 15% 구조조정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장기적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태국에서 감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M은 태국에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 인력 1900명 중 15%인 약 350명 이상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태국 동부노동조합 측이 밝혔다.

GM 측은 정확한 감원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구조 조정의 영향이 미치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는 변화가 없다"며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계속 생산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은 태국에서 '쉐보레' 브랜드로 픽업트럭과 SUV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올 1~7월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9221대였고, 시장 점유율도 1.5%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태국 전체의 신차 판매는 6% 증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태국에서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했다. GM은 이번 감원으로 인건비를 줄여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태국 시장은 일본차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와 이스즈자동차가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포드 자동차의 태국 점유율 역시 5%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은 태국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성장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잘 나가던 자동차 시장에 한파가 몰아쳤다. 태국 자동차 판매는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생활 침해 vs 공공 편의 홍콩 '스마트 가로등' 논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홍콩에서 시작된 '스마트 가로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가로등은 정부가 날씨와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스마트 가로등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홍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며 공공 장소에 감시 시스템 설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최근 홍콩 민간연구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콩에 사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길가에 세워진 스마트 가로등 10개 이상을 전기톱으로 잘라 넘어뜨렸다. 당시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에 통행자들의 움직임과 통신을 감시하는 기술이 내장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위대가 루머를 흘리고 있다"며 "가로등은 스마트 시티 개발 추진을 위해 교통 및 기상, 대기 데이터 등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로크만 추이 조교수는 "홍콩 정부가 가로등을 사용해 몰래 주민을 감시할 가능성은 낮다"며 "홍콩은 신장(위구르 자치구)과는 전혀 다르다.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홍콩 정부는



지난달 24일 홍콩 시위대가 전기톱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잘라 넘어뜨리고 있다. AP연합뉴스

건설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가로등에 내장된 카메라를 활성화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블루투스 식별 번호를 다운로드해 주행 속도를 추적하는 기능 작동도 연기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한 홍콩 비영리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사이먼 왕은 "무선주파수식별(RFID) 장치는 신분증 등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며 "신분증을 읽어내려면 공항 입국 심사장에 있는 것과 같은 공인된 센서를 사용해야 하고, 2cm 이내의 거리에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아스팔트

자동차가 달리는 아스팔트도
자연을 닮고 싶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 도로를 혁신합니다
30°C를 낮춘 친환경 시공으로

에너지 소비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로의 수명은 길게 늘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을 닮은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보험사, 공시이율 줄이하향... 소비자 '불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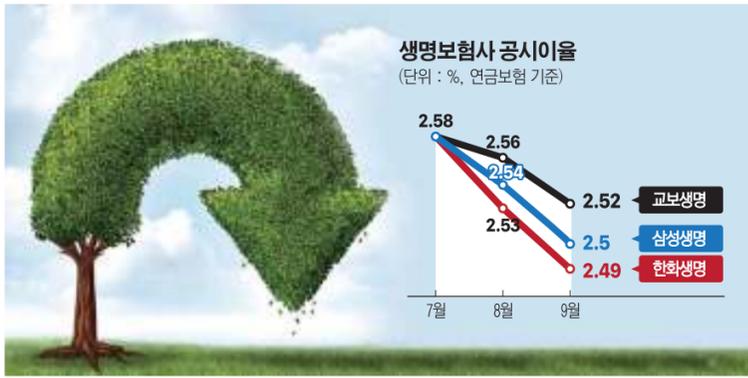
금리 인하 기조에 리스크 상승
역마진 우려 '올며 겨자먹기' 결정
보장 보험 예정이율 인하도 계획
고객 해지환급금 감소 등 불가피

보험사들이 지속되는 금리인하 기조에
공시이율을 연이어 낮추고 있다. 금리 차
이로 인한 자산운용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서다.

보험사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같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
자율을 말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국내 빅3 생보사들은 이달 들어 공
시이율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삼성생명
은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전월 대비
0.05%포인트(p) 낮춘 2.40%로 결정했
다. 연금보험 2.50%(-0.04%p), 저축보
험 2.52%(-0.04%p)도 하향 조정했다.

한화생명도 보장성보험 2.28%(-
0.12%p), 연금보험 2.49%(-0.04%p),



저축보험 2.57%(-0.06%p)의 공시이율
을 일제히 낮췄다.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
은 2.51%로 동결했지만, 연금보험과 저축
보험을 각각 0.04%p, 0.07%p 내렸다.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공시이율이 인
하된 이유는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되고 있
어서다. 한국은행은 7월에 이어 8월 또
한 번의 금리인하를 저율질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금을 받아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판매한
확정 고금리 상품은 금리가 내려가도 계속
높은 금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
에 자산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나
가는 돈이 더 많은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채권 투자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 감소로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과거 확정 고금
리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 입장에서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자산 이익률 감소는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시이율을
낮춰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명
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생보사 평균 운용자산 이익률은 3.4%다.
전년 동기 대비 0.3%p 떨어진 수치다.

보험사들은 공시이율 인하는 상품 경쟁
력을 떨어뜨려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장기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우려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자다. 소비자 입장에서 공시
이율이 떨어지면 보험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고, 원금 회
복 기간이 길어져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는
다. 더군다나 보험사들은 공시이율 하향
조정과 함께 예정이율 인하도 계획하고 있
어 보장성 보험료 상승까지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경영
이 맞물리면서 공시이율 하락은 당분간 지
속될 것"이라며 "현재의 공시이율, 예정이
율을 고수하는 것은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위 내년 살림 3배 핀테크 부문 2배 늘어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 초점

금융위원회가 전년 대비 1424억 원 증
가한 3조10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 금융'의 핵심인 핀테크 부문에는 지
난해보다 97억 원 늘어난 198억 원을 지원
한다.

금융위는 2일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
회계)을 전년 대비 4.8%(1424억 원) 증가
한 3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 금융
과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혁신모험펀드(산업은행이 출자)
에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
자금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
행에 88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480억 원
의 시설투자가 지원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도 500억
원이 투입된다. 자산관리공사 출자로 회수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동산담보의 적시 환
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혁신 금융'의 핵심인 핀테크 지원에는
198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 테스트베드 지
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을 뒷받침한다.

'포용 금융'의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 및
혁신 성장 지원에 2400억 원을 (중소기업
은행 출자)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경영여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
조2000억 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서민금융진
흥원 출연)에도 150억 원을 투입한다. 복
권기금 출연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 원을 공급할 예
정이다.

금융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29억 원), 해외금융 법령 시스템 구축
(1조7500억원)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中企 추석 특별자금 16조 풀린다

기업銀, 기업당 최대 3억 대출
산업銀, 신규 운전자금 1.5조
신보, 5.2조 규모 보증 공급

금융위원회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총 16조 원 규모
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자금 지
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증액했
다. 먼저 기업은행은 기업 운전자금 용

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준
다.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
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30일까지다.

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1조
5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6%p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제
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
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사업자금
50억 원 지원과 카드 결제대금 선지급을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
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중소가
맹점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 가맹
점 대금 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전국 35
만 개 중소기업은 4일부터 1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3000
억 원의 카드 대금이 조기 지급될 전망
이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대출만기와 연금·
예금 지급 시기가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에 만기가 도래

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
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 조
기 상환은 11일 가능하며 16일에 대출
을 상환해도 연체이자 부담되지 않
는다.

예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지급일
이 연휴 기간 도래하면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12~
15일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6일에
추석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한
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역시 10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 수령은 12일이야
닌 16일로 순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
라며 "금융사는 금융 거래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내부관리 절차를 준수해 달
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Dynamic Vision Sensor)

삼성, 차세대 비메모리 사업 '동적 비전 센서' 낙점

이미지센서 다음 먹거리로 초고속 센서 연구
일반 센서보다 20배 빨리 작은 동작까지 감지
자율주행차·드론·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 활용

비메모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다음 먹거리로 '동적 비전 센서(DVS:Dynamic Vision Sensor)'를 낙점했다.

동적 비전 센서는 일반 센서보다 20배 정도 빠르며, 약 3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회피하거나 파악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용 이미지센서 다음으로 동적 비전 센서를 신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2016년 말 동적 비전 센서를 개발해 시연한 후, 작년 말 새롭게 꾸려진 센서 사업팀 주도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동적 비전 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대표적으로 낙상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집 안에서 넘어졌을 경우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못 하는지 △떨어진 곳의 위험도는 어떤지 등

을 동적 비전 센서로 파악한다. 이 내용은 가족의 스마트폰이나 의료 기관 서버, 긴급 구조 요청 서버 등으로 전송된다. 이 기술은 반려동물 등 여러 객체에 적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히 노인 낙상은 심각한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며 "낙상 유무를 정확히 감지하고, 낙상에 따른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술 개발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동적 비전 센서는 일반적 시각 인식 시스템이 빠른 움직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적 비전 센서는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낱말의 픽셀 기준(per-pixel basis)으로 데이터를 받는다. 멈춰 있는 경우에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고, 객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객체를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일반적 이미지 센서들이 프레임들을 이미지 프로세서로 계속 보내 발생하는 데이터와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동적 비전 센서는 마이크로 초 단위

의 해상도를 갖는다. 다시 말해 1초당 수천 프레임씩 찍는 초고속 카메라보다 더 뛰어나게 움직임을 포착한다. 게다가 동적 비전 센서에 의해 획득되는 이미지는 움직이는 객체의 윤곽선 정도만 표현되기 때문에 모니터링되는 객체의 사생활 보호에도 유용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모바일용 6400만 화소와 1억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잇따라 양산하는 등 모바일 이미지 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어 동적 비전 센서와 후각 센서 등 차세대 센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센서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센서사업팀을 새롭게 꾸렸다. 기존 시스템LSI사업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연구,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을 단일 사업 팀으로 묶었다. 사업부장인 박용인 부사장은 센서와 관련성 높은 아닐로그 반도체 분야 전문가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칩 위탁생산)와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센서 사업은 비메모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라며 "모바일용 센서를 넘어서 동적 비전 센서 등 새로운 센서 분야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현대기아차 과장·부장 없앤다

인사제도 개편

직급 단순화 '매니저' 호칭
승진연차 없애고 절대평가
수직적 기업문화 탈피 노력

현대·기아자동차가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자기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게 목표다. 과장과 부장 등 직급 체계도 단순화해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로 나뉘었다.

2일 현대·기아차는 직급과 호칭, 평가,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개편한 새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직 직급을 기존 직위와 연공 중심의 6단계에서 역할에 따라 4단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5급사원과 4급사원은 G1 △대리는 G2 △과장은 G3 △차장과 부장은 G4로 통합한다.

호칭은 더욱 단순화해 △G1-G2는 매니저 △G3-G4는 책임 매니저로 불린다. 팀장, 파트장 등 보직자는 기존 처럼 직책을 호칭으로 사용기로 했다.

직원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승진 연차 제도 역시 없앴다.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단순히 평가 관점에서 벗어나 직원 육성 관점의 성과관리와 상호 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능력이 있다면 승진도 빨라진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



인사제도 개편 첫날인 2일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로비에 제도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투데이DB

수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전처럼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은 이듬해 바로 부장 승진 대상자가 되는 방식이다. 최근 도입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복장 자율화 등의 기업문화 혁신활동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임직원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 제조업의 인사제도인 연공 중심,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탈피해 새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켜 미래 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2020년형 쌍용 렉스턴 3400만원대부터 쌍용자동차가 '2020 렉스턴 스포츠' (왼쪽)와 '2020 렉스턴 스포츠 칸'을 2일 선보였다. 두 모델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갖춰 배기가스를 대폭 줄였고, 출력과 연비는 3%가량 향상했다. △사각지대 감지(BSD) △차선변경 경보(LCA) △후측방 경보(RCTA)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갖췄고, 합리적 가격대의 트림(KHAN 프레스티지 스페셜)을 신설했다. 이날 함께 출시된 '2020 G4 렉스턴'은 가로 폭을 키워 대담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대형 모델에 어울리는 마블 그레이(Marble Gray) 색상을 추가했다. 엔트리 모델(럭셔리)부터 첨단운전자보조기술(ADAS)을 기본으로 갖춰 높은 안전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3439만~4415만 원(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이다. 사진제공 쌍용차

현대제철 '슬래그 재활용' 도로포장재 상용화

현대제철이 전기로 슬래그를 이용한 친환경 도로포장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16년 전기로 슬래그를 재활용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현대제철은 국내 1위 아스콘 업체 SG와 '슬래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술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제철이 출원한 '산화 슬래그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특허 등록 제10-1837857호)'에 대한 전용실시권 협약이다.

향후 현대제철과 SG는 슬래그 아스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로 슬래그는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일 때 사용되는 석회석의 부산물로 지금까지 건설토목용으로만 사용됐으나 현대제철의 기술개발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대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미국·EU에서는 슬래그를 도로 포장의 골재로 보편적으로

사용(미국 51%, 유럽 46%)하고 있다. 또 슬래그를 활용한 아스콘 제품은 기존 천연 골재와 비교해 고강도·고내구성을 지닌 프리미엄 소재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2년 슬래그 아스콘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3년 7월 당진제철소 사내도로에 천연골재와 슬래그를 구분 시공해 3년 이상 장기 내구성을 평가했다.

2015년 7월에는 충남지역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로 선정돼 당진, 서산, 아산 등 지자체 도로 2km 구간에 시험적으로 도로 포장에 사용해 슬래그 아스콘 품질 검증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검증 결과 슬래그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 대비 약 1.5배 이상의 강도를 보여 중차량 통행이 많은 넓은 도로에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도로의 수명이 대폭 향상돼 교체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 '첫 보급형 5G폰' 갤럭시A90 내일 출시

80만원대 후반 예상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라인업 다양화를 통해 국내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지난달 갤럭시노트10 5G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에는 첫 5G 보급폰인 갤럭시A90 5G를 공개한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A90 5G를 4일 출

시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갤럭시A90 5G에 6.7인치 물방울 디스플레이에 6GB램, 128GB 용량이 적용됐다. 후면에는 △4800만 화소 △500만 화소 △800만 화소 등 트리플 카메라, 전면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갤럭시노트10과 마찬가지로 엑시노

스 9825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출시가격은 80만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100만 원 이하의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출시된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최고 155만 6500원·최초 출고 기준), LG전자 V50 씽큐(119만9000원), 갤럭시노트10(최대 149만6000원) 등의 가격은 모두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상선 초대형 유조선 취항식 향후 5년간 GS칼텍스 원유 운송

현대상선이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빅터(Universal Victor)'호 명명 취항식을 2일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된 '유니버설 빅터'호 명명 취항식에는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을 비롯해 이영환 GS칼텍스 부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형철 한국선급 전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니버설빅터호는 2017년 9월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5척의 건조계약 선박 중 마지막으로 인도되는 유조선이다. 향후 5년간 GS칼텍스의 원유를 운송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측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IMO 황산화물 규제에 대비해 스크러버를 장착했으며 경제운항속도에 최적화된 엔진을 탑재해 연료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정부의 해운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건조된 신조 선박이 국내 해운과 조선의 시너지 효과를 넘어 화주 협력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내년 4월부터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등 20척의 초대형선 인도를 앞두고 있는 현대상선은 올해 5척의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확보로 사업 다각화의 초석을 놓는 등 한국해운 재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경무 기자 noglasses@

대한항공 '인천-브루나이' 브루나이항공과 공동 운항

대한항공은 4일부터 로열브루나이항공과 인천-브루나이 노선에 대해 공동 운항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 운항은 상대 항공사의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운항편 확대 효과를 거두는 항공사 간 제휴방식이다. 이번

공동 운항은 대한항공이 로열브루나이항공의 인천-브루나이 운항 노선에 판매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인천-브루나이 노선을 직접 취항하지 않고도 실질적 노선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 운항 시행을 통해 대한항공은 로열브루나이항공이 주 4회(화, 목, 금, 일) 운항하는 인천-브루나이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김기승 기자 kissong@

현대차 계열사로 공채 폐지 확산

모비스 이어 현대제철 수시 채용
현대로템 등 다른 계열사도 검토

올 초 현대자동차그룹이 10대 그룹 최초로 선언한 '공채 폐지' 움직임이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2월 그룹에서 가장 먼저 '정기 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인 5월에는 현대모비스가 그 대열에 올라섰다. 이어 4월부터 채용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현대제철 역시 오랜 기간 유지했던 공채 틀을 벗고 수시 채용 전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룹의 방침을 따라감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공시 채용 전면 폐지' 관련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공채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상 8월 말~9월 초 시작되는 현대제철의 하반기 공채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으며, 대신 연구개발(R&D), 영업, 생산기술, 정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진행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별 정기공채 폐지 현황

※ 출처: 각 사

계열사	공채 폐지 여부 (수시 채용 전환)	시행 시점
현대·기아차	○	2월
현대모비스	○	5월
현대제철	단계적 전환	하반기
현대클로비스	X	-
현대로템	검토 중	-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대제철도 수시 채용 늘리고 서서히 공채를 없애며 그룹 정책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 모비스가 창사 이래 최초로 도입한 상시채용은 직원들로부터 적재적소에 인재를 투입하고 긍정적 사내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하반기 정기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인 현대클로비스는 아직까지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클로비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채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정기적으로 공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등 나머지 일부 계열사는 공채

폐지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월 국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정기 공채를 완전히 없애고 수시 채용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정기 공채를 포기한 것은 창립(1967년) 이래 처음으로, 2008년부터 해마다 2회 실시했던 현대차그룹인·적성검사(HMAT)도 폐지됐다. 당시 그룹 관계자는 "정기 공채 방식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수시채용 전환을 결정했다"면서 "실제 기존 공채 시스템은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기까지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상시 공채의 경우 인재 확보 기간을 7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혁신적 결단은 재계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SK그룹이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대용량 김치냉장고 모델 추가

삼성전자는 6월 도입된 '김치플러스 비스포크(BESPOKE)' 3도어와 1도어에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대용량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 비스포크는 기존 8개 타입에서 9개 타입 모델로 늘어나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됐다. 3도어와 1도어는 '키친핏'으로 주방 가구에 맞게 빌트인처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4도어는 '프리스탠딩' 타입으로 최대 584L의 여유로운 용량을 제공한다. 출고가는 280만~600만 원. 사진제공 삼성전자

박용만 "태국 新산업 韓 참여 기대"

〈대한상의 회장〉

한국·태국 비즈니스 포럼
문 대통령 등 500명 참석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지평을 힘차게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비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 등 여러 협력 과제들이 합의돼 대단히 반갑다"고 언급했다. 또 "전자, 바이오, 에너지, 물류, 차세대 자동차 등은 태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산업이자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산업"이라며, 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태국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국-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무엇보다 태국과는 지난해 사상 최대 교역을 기록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태국 비즈니스 포럼은 대한상의와 태국 투자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짘오차 태국 총리가 참석, 자리에 모인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양국 정상이 기업인 행사에 공동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0여 명이 모여 한국과 태국의 역대 최대 경제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이번 포럼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등 국내 250여 명의 기업인과 강경화 외교부

무동짜이 아사왓핀타짖 태국투자청 사무총장도 "태국은 스마트·디지털 혁신 전략과 적극적인 지역 개발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며 "태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협력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 유턴 기업 482개, 韓 10곳 불과"

전경련 '유턴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미국은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은 연간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 고용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파격적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에 따라 유턴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유턴법 시행 이후 2014~2018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인 8만 1886개에 달했다. 대부분의 유턴 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4~2018년 11월까지 한국 유턴 기업의 신규 고용은 누적 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 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독자적인 AP 독자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 ▶ 고열량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 ▶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올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자음보액 | 건강한 갱년기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께 | 메타그린 | 식습관과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께 | 명작수 | 프리미엄 홍삼의 특별함을 전하고 싶은 부모님께

제품상담 080-023-5454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KT 5G 고객은 배터리 절감기술로 폰을 최대 61% 더 오래 즐깁니다

[배터리절감기술 (C-DRX) 이란?]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화시켜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배터리 사용시간은 61% 더 길게!

갤럭시 S10 5G 단말기 방전 시까지
YouTube 연속 재생 시간을 당사 배터리 절감기술 적용 전후로 비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고물 하단 및 홈페이지 참조



삼성, 2차 협력사에 성과금...현대차, 경영 노하우 전수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9> 동반성장 -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공정거래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 2018년 기준, 대기업으로 분류된 200여 곳이 2만8000여 개 협력사와 협약을 유지 중이다.

협약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는 △수입대체 △수출확대 △품질향상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도 담겼다.

수출 확대·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 전폭 지원 현대차 1차 협력사 매출 5년 새 72% 증가 효과 SK인천석화, '위험한 현장' 작업 중지권 첫 보장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상생 강조하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7월 대대적인 결단을 앞세워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상생을 강조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협력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각 사업장에 상주하는 1~2차 우수 협력사 임직원 1만9000여 명에게 총 323억300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

일부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하청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인센티브 대상에는 생산 및 품질 관련 근로자 이외에 협력사의 사업장 설비 유지 및 보수 직원, 청소 인력까지 대거 포함됐다.

2010년 시작한 협력사 인센티브 누적 금액은 올 상반기까지 총 3059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차 우수 협력사까지로 규모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협력사와 공정한 위치에서 신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협력사 경영진에 경영 노하우 전수하는 현대차 = 현대차그룹은 협력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과 법규 동향, 규제 대응 등을 공유하는 '협력사 R&D 관리자 세미나'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세미나를 통해 협력사 경영진은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 받는다. 협력사 스스로 자립 경영 기반을 다지고, 현대차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원청사가 돕고 있는 셈이다.

이런 노력은 실제 협력사들의 경영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그룹 주요 11개 그룹사의 1차 협력사(2380개) 매출 추이를 보면, 2010년 95조 원에서 2015년 163조 원으로 무려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협력사까지 지원하고 협력사 직원에 '작업 중지권'도 부여 = 화학 업계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부당거래 차단 및 나눔실천 등 다양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LG화학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 지원·결제 조건 개선 △안전환경 및 에너지 상생 활동 △협력사 역량 강화 △정보 공유 및 소통 활동 등 동반성장 5대 전략을 통해 공정 경영을 확대해 왔다.

특히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해 협력사를 상대로 부당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 살피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LG화학이 납품 단가 인상, 금융 지원, 대금 결제 조건



1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3월 '2019 상생협력데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협력사 '인탑스' 관계자로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된 신소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책임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관세환급과 절세,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왔다. 지난해 협력사 대상 관세환급 설명회 모습.

개선 등을 1차 협력사에 지원하면, 1차 협력사는 해당 조건 그대로 2차 협력사도 도와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가 살피는 부분이 이런 항목이다.

SK그룹화학사는 '1% 행복나눔기금'으로 협력사와 상생 보폭을 넓힌다. 1% 행복나눔기금은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이 매달 기본급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만큼을 더하는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다.

기금 외에도 협력사 직원의 현장 안전 보장을 제도화했다. 이른바 협력사 직원의 '작업 중지권'이다.

작업 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임직원을 위해 시작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등한 위치와 지위가 보장되는 셈이다.

◇협력사와의 공정거래가 상생의 지양분 = 일각에서는 아직도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공정거래를 위한 지원이 활발하지 않다고 본다. 또 하청업체에 원청사가 의도를 갖고 개입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선의를 갖고 협력사를 돕더라도 경직된 국내 노사문화에선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결국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이 더욱 확산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 우리 사회가 편견없는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의 공정거래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사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고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이어가는 1차 협력사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 자동차 시대가 다가올수록 협력사의 기술 자립도가 공정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협력사 인재 확보에 두 팔 걷었다

현대차 8회째 채용 박람회...포스코, 구직자 훈련 지원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현대차가 지원한 '2019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인재 확보는 기업 경영에 필수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인재 층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계가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도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 창원, 울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이 채용 설명회와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행사 기획과 운영 등 재정적 지원을 맡았다. 올해는 현대차·기아차 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다양한 분야 그룹사도 참여했다. 박람회에는 부품과 설비, 원자재 등 전

국적으로 약 260개의 다양한 분야 협력사가 참가했다.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의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인재 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박람회에 청년과 중장년 인재 2만 명 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취업 전문 포털사이트 커리어, 인크루트와 함께 만든 '협력사 채용박람회 채용지원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원활한 인재 채용을 연중 돕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채용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역시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3월부터 포항과 광양 등 지역의 청년 구직자 42명을 모집해 취업 지원 교육에 나섰다. 이 중 95%가 넘는 40명이 교육 수료 후 협력사에 취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청년 구직자 121명을 교육하고, 114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왔다. 처음으로 협력사 취업 지원 교육을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89명의 청년을 교육하고, 1156명을 일자리와 연결했다.

또한, 포스코는 교육시설과 전문 강사가 부족한 자체 교육이 어려운 협력사와 공급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지난해에만 무려 5만여 명에 달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SKT, 5G기술 기반 ‘스마트건설 혁신’ 나선다

건설기술·현대건설기계·SK건설·트림블과 업무협약 체결
드론 활용 자동 측량·AI 자동화 장비 시공 등 건설 현장 적용
통신 인프라 구축, AI·IoT 기술 제공... 글로벌시장 진출 협력

SK텔레콤이 5G 기술 기반의 스마트 건설 현장 혁신을 위해 속도를 낸다. 현장 인력 여러 명이 직접 측량장비로 지형을 측정했던 이전과 달리,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손쉽게 3D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다. AI 기반의 자동화 기체가 자율주행으로 이동해 세밀한 시공 작업까지 완료한다.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설기계 수명도 늘렸다.

2일 SK텔레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대건설기계, SK건설, 트림블 등과 함께 '5G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업·기관은 건설현장 설계부터 운

용·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5G·AI 기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협력에 나선다. 연12%씩 급성장하는 세계 스마트 건설 시장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SK텔레콤과 현대건설기계, 트림블 등 3개사가 맺은 업무협약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과 SK건설이 합류해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5개 기업·기관은 내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경기 연천군



권수안(왼쪽부터) 건설연 산업혁신부원장, 김광윤 SK건설 인프라O-E혁신실장, 최판철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장, 윤영철 현대건설기계 전무, 마크 니콜스 트림블 부사장이 '5G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소재)에서 기존 건설 현장과 스마트 건설 현장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직접 비교 측정·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건설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적용 프로세스를 확립할 예정이다. 5G 기반

의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드론 활용 자동 측량 △AI 자동화 장비 활용 시공 △IoT 측위센서와 실시간 고화질 영상 관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AI와 IoT 기술을 제공한다.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은 연천SOC실증센터 내 실험 부지를 제공하고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5G 스마트 건설 기술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 기반 확립에 나선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능형 건설 중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SK건설은 비교 실험을 위한 건설 현장 시나리오 개발 및 공사를 진행한다. 트림블은 건설현장 데이터 분석과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한다.

5개 기업·기관은 10월 실증을 시작해 평가실험 결과를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향후 5G 스마트 건설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도 협력한다.

최판철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각 분야 대표 기업·기관들이 5G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건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한 건설 현장 구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조국 청문회’ 된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놓고 한국당 의원 질의 쏟아져
최기영 “他후보자 사안... 언급 적절하지 않아” 즉답 피해
“日과의 부품소재 분야 기술 격차 2~3년 내 따라잡을 것”

여·야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놓고 충돌했다.

2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한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나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한당 의원들은 시국선언 등을 한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향된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듯 보이는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 교수의 배우자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의 진보단체 후원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은 없었고 정말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을 때만 참여한 것뿐”이라며 “정치적 편향 없이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나마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야 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스

는 것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12명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중도 하차했고 몇몇은 워선의 압력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관 되면 막아 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당연하다”면서도 “본인 스스로

사임했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소재 및 부품분야에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2~3년 안에 좁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화학분야 소재와 부품은 어떤 투자가 이뤄져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화학분야 소재·부품은 평균 2~3년 뒤쳐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길게 뒤쳐진 소재는 5년 정도 격차가 난 부분도 있지만, 거의 격차가 없는 소재·부품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다만 최 후보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하며, 지금부터 집중 투자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와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는 저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신·변종 해킹 선제 대응” KT-안랩 ‘통합TI’ 개발

위협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안랩은 KT와 공동으로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위협정보를 통합해 신·변종 해킹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통합TI (Threat Intelligence, 위협정보) 1.0’ 개발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TI 1.0은 위협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 △국내 최적화 △상관관계 분석 기능이 있다. 통합TI 1.0은 KT 네트워크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위협정보(TI)와 안랩의 V3백신 등 엔드포인트의 빅데이터 위협정보인 악성코드, 위협 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한 정보를 바로 보안 제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보보안 벤더사가 제공하는 위협정보(TI) 시그니처 업데이트 대비 최신 위협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KT는 통합 TI 1.0을 안랩 트러스트가드 UTM 보안장비에 시그니처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며, KT의 보안 서비스인 기가 와이파이 시큐어에도 적용했다. 향후에는 국내외 정보보안 사업자와 제휴해 연동되는 보안장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치중 안랩 대표는 “안랩의 전문적 보안대응 경험에서 나온 엔드포인트 TI와 KT 전국 최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나오는 TI를 통합해 다양하고 고도화된 위협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통합 TI를 양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근 KT 전무(통합보안플랫폼사업단장)는 “향후 국내 정보보안 전문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KT-안랩 통합 TI를 연동하는 등 국내 정보보안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카카오, 11인승 ‘라이언 택시’ 내달 운행... ‘타다’와 격돌

서울·수도권 중심 경쟁구도
“지방으로 서비스 확대해야”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달 11인승 대형 택시 출시를 예고하면서 타다와 본격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한 법인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기사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라이언 택시’로 불리는 11인승 승합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사는 주야 2교대 주 6일 근무한다. 채용 후에는 택시 면허 취득 등을 거쳐 10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11인승 택시로 대표되는

업체는 VCN가 서비스하는 ‘타다’가 있다. 지난해 10월 오픈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VCN는 타다 베이직과 타다 어시스트, 타다 프리미엄 등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출시 6개월 만인 5월에는 회원 수 50

만 명 돌파했으며 문정 10개월인 지난달에는 회원 수 100만여 명으로 성장했다. 재탑승률은 평균 89%대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이언 택시는 11인승 승합차인 스타렉스와 카니발 중 택시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11인승 카니발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와의 맞

대결이 불가피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내달 라이언택시를 출시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 과열 경쟁도 예상된다. 현재 타다는 49개 시,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중심이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과열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타다가 발표한 ‘타다 신규 지역 제한’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서비스 요청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아직 지방에 플랫폼 택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젊은층이 입어야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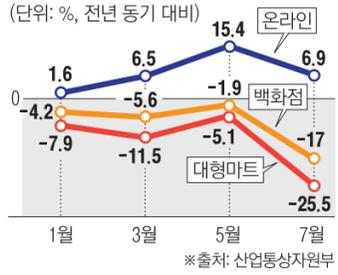
패션업계, 밀레니얼세대 겨냥 새단장

패션 업계가 온라인·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유통 채널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20·30 밀레니얼세대가 소비 주축으로 떠오르자 패션업계는 장년층 대상의 기존 브랜드를 새 단장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젊은 층을 겨냥한 전략은 '아재' 이미지로 내리막길을 걷다 부활한 휠라의 성공 전략이기도 하다. 주 고객층이 30·40대였던 휠라는 10·20대를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했고, 판매 채널도 이들 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춰 다양화했다. 휠라의 성공 사례를 이식하려는 패션 업계의 적극적인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여성 브랜드 '구호'의 세컨드 브랜드 '구호플러스(kuho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2003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인수해 본격적으로 성장해 온 구호는 본래 30·40대 소비자를 위한 여성 패션 브랜드였으나 최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세컨드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 성장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중심의 25·35 세대를 겨냥한 '구호플러스'를 론칭했다"며 "구호플러스는 'Plus Your Sensibility'라는 슬로건과 함께 정제된 독특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좋은 소재와 고품질 등을 강조해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호플러스는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재킷은 27만~32만 원대, 원피스는

패션 매출 신장률



23만~25만 원대, 스커트·셔츠·블라우스는 15만~23만 원대로 기존 브랜드인 구호 대비 최대 50% 저렴하다. 구호플러스는 삼성물산 통합 온라인몰 SSF샵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를 선정해 팝업 스토어도 열 계획이다.

패션기업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은 지난해 온라인 전용 세컨드 브랜드 '올리비아비(Olivia.B)'를 론칭했다. 기존 올리비아로렌이 중장년 여성을 겨냥했다면, 올리비아비는 30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잡았다. 상품은 티셔츠, 니트, 셔츠, 카디건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올리비아로렌 관계자는 "요즘 패션 브랜드

들이 신규 라인 출시나 온라인 전용 브랜드 론칭 등 라인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며 "올리비아로렌도 '올리비아비' 론칭을 통해 온라인 급성장에 대응하며 유통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젊은 고객층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여성복 브랜드 로엠 역시 올해 초 2025 젊은 고객을 위한 세컨드 브랜드 바이로엠(BYROEM)을 론칭했다. 20대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만큼 바이로엠 가격은 로엠보다 70~80% 저렴하게 책정했다.

패션 업계는 기존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가 아닌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기도 한다. 패션그룹 신원은 올해 초 10·20 세대를 겨냥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마크엠(MARK M)'을 론칭한 데 이어 지난달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지나식스(GINNASIX)'를 새로 출시했다. 지나식스는 신원의 첫 온라인 브랜드로, 신원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신원몰'에서 첫선을 보인 후 W컨셉, 29CM 등의 온라인 편집숍에 순차적으로 입점할 계획이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가두점 중심으로 유통채널을 운영하던 패션 업계는 유통채널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면서 "기존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나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내놓는 것은 새로운 젊은 고객 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했습니다

포인트 더주고 덤 증정... 출점 막힌 편의점 "충성 고객 모셔라"



출점 절벽에 빠진 편의점 업계가 백화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VIP고객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데서 벗어나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차별화에 나선 편의점들이 혜택을 강화해 '충성 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GS리테일은 운영 중인 GS25가 '나만의냉장고' 애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인구수를 고려하면 5명 중 1명은 '나만의냉장고' 앱을 다운로드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GS25가 첫선을 보인 '나만의냉장고'를 통해 소비자는 1+1 등 행사 상품에서 덤으로 증정하는 상품을 바로 가져가

CU는 BGF리테일이 내놓은 서비스로 상품 구매 시 원(One)바코드로 멤버십 포인트 적립(또는 통신사 할인), 쿠폰 사용, 간편 결제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멤버십 앱이다. 적립 및 할인 내역은 물론, 영수증 상세 내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교환·환불 시 편리한 서비스다.

이번에는 'CU VIP 혜택관'을 오픈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CU VIP 혜택관'은 매달 CU 우수 고객에게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 등급을 나눠 VIP 혜택을 강화한 백화점 전략을 도입한 것으로 편의점 업계 최초다.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포켓CU' 적립 대상 금액이 3만 원 이상(담배와 서비스 상품 제외)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CU는 해당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인 총구매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여기에 매달 알뜰소비 기회도 제공한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선 이유는 어려워진 영업 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자율협약으로 인해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포당 수익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편의점 숫자는 4만5000개에 이를 정도로 포화 상태다. 도심 및 주요 주거지에 편의점이 없는 곳이 드물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가 많다. 해당 브랜드를 꼭 들를 이유를 내놓지 않으면 경쟁사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최근 편의점들이 똑같은 상품을 파는 데서 벗어나 PB(자체 브랜드)상품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향후 경쟁력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고객과 가까이 있느냐가 아닌 고객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백화점처럼 VIP고객 전략

GS25 '나만의 냉장고' 고객에

주문도시락 등 이벤트 더해

CU 'VIP 혜택관' 새로 열고

우수고객에 구매액 2% 포인트로

않고 앱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전국 GS25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주문도시락과 각종 고객 이벤트 등을 더했다.

출시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특히 GS25가 최근 3년간의 '나만의냉장고'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 고객 대비 '나만의냉장고' 앱 이용 고객의 1회 구매금액이 2.1배 많고, 월별 평균 방문 횟수는 무려 8.4배 높았다. 현재까지 '나만의냉장고' 앱 이용자는 550만을 넘어섰고, 보관 사용한 증정품 건수는 1억1500만 건을 넘어서 고객 유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라이벌 맞수 CU(씨유)는 지난해 10월 '포켓CU'를 론칭해 맞서고 있다. '포켓

'몰링 끝판왕' 스타필드 시티 부천 5일 오픈

지역주민 교류 '시티마켓' 트레이더스·메가박스 입점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경기 부천의 새로운 택지지구인 옥길 신도시에 오픈한다.

신세계그룹은 3일 '스타필드 시티 부천'을 프리 오픈해 이틀간 운영한 후 5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지하 5층 지상 9층 높이에 연면적 10만㎡, 매장면적 4만 1800㎡, 동시주차 1900대 규모로 이뤄졌다. 트레이더스를 중심으로 F&B와 마켓을 결합한 시티마켓을 비롯해 5개 관 850석 규모의 메가박스과 일렉트로마트, 토이킹 등 전문점, 그리고 패션, 스포츠, F&B 등을 포함해 총 140여 개의 매장이 입점했다.

신도시 특성상 문화시설과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교육과 문화, 레저, F&B,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장보기와 식사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새

로운 콘셉트의 F&B 편집 매장인 '시티마켓'을 처음 선보인다. '제주산방식당'과 '홍대갈국수와족발', '고래함박' 등 다양한 먹거리의 푸드홀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PK피코크', '와인앤모어' 등 다양한 마켓, 라이프스타일스토어 '자주'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타필드 시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별마당 키즈'를 매장 중심부에 배치하고 확대했다. 별마당 키즈는 소아청소년 심리 전문가가 디자인한 특별한 공간으로 뇌가 인식하는 가장 안정된 원형 구조를 반영해 만든 아동 특화 도서관이다.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천연 잔디로 조성된 펫파크도 설치됐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오픈에 맞춰 330㎡(100평) 규모의 어린이집도 설립한다.

남주현 기자 jooh@

SK, 韓·美·유럽 의약품 생산법인 통합

SK팜테코 설립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 도약"

바이오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SK(주)가 글로벌 10위권 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SK(주)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분산돼 있던 의약품 생산법인을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했다.

SK(주)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CMO 통합법인 SK팜테코(SK Pharmteco)를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SK팜테코는 SK바이오텍, SK바이오텍 아일랜드, 미국 AMPAC를 합친 회사로,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SK(주)는 SK바이오텍 주식과 SK바이오텍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통합법인인 SK팜테코에 현물 출자한다.

회사 관계자는 "통합법인 설립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던 의약품 생산사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시너지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라며 "하나의 브랜드 아래 통합 마케팅을 실시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각 지역 CMO 운영을 최적화하면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SK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을 CMO사업에 접목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추가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지속적인 가치 제고 등도 벌일 계획이다.

SK(주)는 2017년 SK바이오텍 아일랜드, 2018년 AMPAC 인수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해 왔다. SK팜테코 출범은 AMPAC의 인수 후 통합 사업을 마무리,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반을 다진 것으로 해

석된다. SK(주)는 생산 규모를 현재 100만 L 수준에서 세계 최대 규모까지 확충하고, CMO 사업 가치를 2025년 이후 10조 원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적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CMO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7%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3~4년 선도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15%를 웃도는데, SK(주)의 CMO 사업도 이를 뛰어넘는 매출 증가와 연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SK(주) 관계자는 "통합법인 설립으로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통합법인의 미국 내 상장 및 글로벌 M&A 등 추가 성장 전략을 실행해 글로벌 톱10 CMO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아시아나항공 오늘 예비입찰... 흥행 여부 '안갯속'

인수 후보 거론됐던 SK·CJ·한화·롯데 "참여 의사 없다"
 애경, 2조원대 매각가 부담... KCGI, 단독 참여 불가능
 아시아나 실적 부진에 업황도 부정적... 인수전 '미지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적 부진과 부정적 업황에 인수전 분위기는 냉랭하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는 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주식 31.05%,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매수 의지를 표출한 원배자는 애경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뿐이며 대기업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찍이 SK와 CJ, 한화, 롯

데 등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들 기업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최근에는 GS그룹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명확하지 않다.

애경그룹과 KCGI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은 적다. 애경그룹은 2조 원대의 매각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AK홀딩스의 2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2억 원에 불과하다. 애경산업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그룹의 저가항공사(LCC) 제주항공도 2분기 매출액 3130억 원, 영업적자 27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KCGI는 재무적 투자자(FI)라는 특성상 단독으로 인수전 참여가 불가능하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전략적투자자(SI)를



찾아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을 원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대기업의 인수를 희망해왔다.

항공업계의 부진한 업황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및 재무구조도 매각 전 향방을 불투명하게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

실 1241억 원, 당기순손실 202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약 660%다. 부채 규모는 약 9조 6000억 원이다.

한·일관계 악화와 높은 환율, 미·중 무역 분쟁, 국내외 경기 둔화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

내 모든 항공사가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 전망도 좋지 않다.

케이프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공급 대금 갈등과 같은 뇌관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반기보고서에서 케이프고메코리아가 기내식 대금 136억 원을 청구했으며 기내식 단가 산정과 관련해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측과 금융당국은 흥행 기대감이 떨어져도 분리 매각보다는 통매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가가 2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 시장에서 냉대받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매각을 주관하는 금호산업이 통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은 예비입찰 이후 쇼트리스트 선정, 실사 등을 거쳐 11월쯤 본입찰을 진행하고 연내 매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재활용 가능한 옥외광고 플렉스 세계 첫 개발

기업탐방

스타플렉스



스타플렉스 공장 전경.

사진제공 스타플렉스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옥외 광고. 그러나 환경 오염과 산업 폐기물 배출 문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기술을 갖춘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플렉스는 세계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옥외 광고 플렉스를 개발, 독보적인 라미네이팅 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스타플렉스는 높은 내구성과 오염성이 적은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 배너부터 대형 사인, 지하철 광고, 간판, 실크스크린 등 비와 곰팡이, 자외선 등 외부 환경에 강하고 수명이 긴 상품들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사 보유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창출하고 있다"며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대기 배출 처리 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해 국내외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 60% 이상
 전세계 60개국 80개사 납품
 2분기 매출 243억... 104%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도 상승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3억 원, 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 491.8%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481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을 달성했다.

미국, 유럽, 베트남 등 전 세계 약 60개국, 80개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견고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특히 최근 인도와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호재로 작용했다.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한 베트남(호찌민) 법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미국의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 가동률을 현재 70%에서 내년에는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판관비, 매출원가 하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향후 환율 상승도 예상돼 있어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주요 시장인 미국, 브라질 등이 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세 혜택이 있는 베트남에 설비를 이전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중국 등 경쟁국 제품 대비 앞선 기술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상보 주요 재무상태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차입 상환 후
부채비율	206.7	253.6	495.3	420.8	213.2
부채	1149	1145	983	979	811
자본	536	477	198	232	380

※출처: 한국기업평가

부채비율 개선... 내년 턱어라운드 기대

상장사 재무 분석

상보

상보가 대규모 차환과 유상증자 대금 확보 등을 거쳐 부채의 기한이 상실 우려를 해소했다. 올해 하반기는 중소형 광학 필름 진출 가능성도 커지면서 내년부터 턱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상보는 최근 조달한 148억 원의 유상증자금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 부채비율이 420.81%에서 200%대(한국기업평가 213.2%, 나이스신용평가 207.3%로 추정)로 낮아졌다.

급증한 부채비율로 인한 채권단의 상환 압박이 사라진 셈이다. 상보는 올해 들어 2017년 12월 발행한 170억 원 규모의 제2회 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해당 BW는 사채관리 계약서상 부채비

율 400% 이하 유지 조항을 따르며, 2018년 300억 원 규모의 비경상적 비용으로 인해 상보의 부채비율이 495.26%까지 치솟았다. 비경상적 비용 발생 사유는 김포 공장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135억 원), 유무형 자산 손상차손-폐기손실(100억 원), 기타대손 상각비(55억 원) 등이다.

핵심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채권자는 상보에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2회 차 BW 채권자들은 2019년 6월 5일 조기 상환 청구를 했으며, 133억 원이 조기 상환됐다.

상보는 상환금 조달을 위해 신한금융투자로부터 14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으며 16일 납입된 유상 증자금이 해당 단기 차입금 납부에 쓰인 것이다. 일련의 과정으로 재무구조가 정상화 순서를 밟으면서 신용평가기관인 NICE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상보의 신용 등급을 'B'로 유지하고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종민 기자 kjm@

케이알피앤이, 상반기 매출 79% 급감

바이오 증유 시장 경쟁 격화로 영업손실 10억 더 늘어

케이알피앤이(옛 퍼시픽바이오)의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알피앤이는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 215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9.1% 급감한 수치다. 영업이익에서는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35억 원으로 작년 25억 원보다 10억 원 더 늘었다.

연결 실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매출 59억 원에 3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케이알피앤이는 1997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주업으로 설립됐다. 바이오 증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사업 초기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플랜트 건설 등을 병행하다 2015년부터 바이오 증유 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지만 1년여 만에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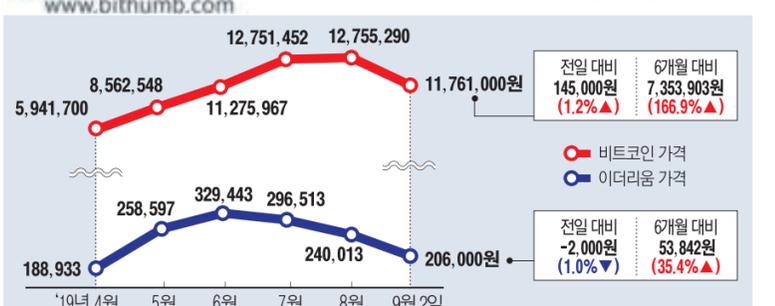
바이오 증유는 동식물성 유지와 팜유,

팜 부산물, 저등급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피치를 재료로 생산된 연료다. 정부는 4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정해 발전용 바이오 증유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에 약 50만kℓ의 바이오 증유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3500억 원 규모다.

현재 작년 기준 바이오 증유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등록업체는 총 21곳으로, 이들 업체의 생산능력은 210만kℓ 수준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실제 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는 9~10곳에 그친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유화, GS바이오 등 대기업도 참여하면서 시장 경쟁은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9월 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9,100	1,400 (0.4% ▲)	모네로	83,700	2,050 (2.5% ▲)
리플	307	-4 (1.3% ▼)	비트코인골드	14,250	-150 (1.0% ▼)
라이트코인	79,000	-150 (0.2% ▼)	이더리움클래식	7,525	-65 (0.9% ▼)
대시	128,700	200 (0.2% ▲)	퀀텀	2,628	-53 (2.0%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상한제 前 '밀어내기 분양' 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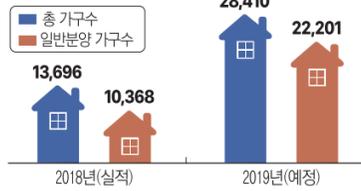
이달 수도권에만 1만5800가구

이달 서울·수도권에서만 1만58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서울과 광명 등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감에 최근 불어닥친 청약 광풍이 이어지겠지만 그 외 수도권은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관심이 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직방과 분양업체에 따르면 이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만5820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경기도가 9795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3815가구, 2210가구가 분양 채비에 들어간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으로 선호한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개나리4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시장에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팽백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중흥스클래스', 인천 서구 '투원시티 대성베르힐2차 더센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와 고양 지축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국 분양물량 추이
(단위: 가구, 9월 기준)



최근 분양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평균 수백대 1, 최고 수천대 1까지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예고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높은 청약경쟁률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난주 문을 연 분양 단지의 견본주택에 몰려든 인파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와 서대문에 각각 들어서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경우 개관 이후 3일간 모두 6만2000여 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분양시장도 열기는 비슷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서울 구축 아파트도 가격 '들쭉'

(입주 15~20년)

강남 4구 상승세 더욱 두드러져
2006년 입주 대치동 '도곡 렉슬'
2~3개월 새 호가 2억 올라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언이 나온 이후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들쭉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가려 있는 모양새이지만 뛰어난 입지 조건을 앞세운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0.02% 올랐는데 서초(0.04%)·강남(0.03%)·강동(0.02%)·송파구(0.01%) 순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일반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추이

(단위: %) ※출처: 부동산114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3% 떨어져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4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2% 떨어진 반면 일반아파트는 0.19%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2% 떨어진 송파구도 일반아파트는 0.06% 올랐다.

일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신축 단지의 강세 영향 때문이지만, 재건축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구축(입주 15~20년) 아파트들의 상승세도 힘을 보탤기 때문에 풀이된다.

실제로 2006년 입주한 강남구 대치동 '도곡 렉슬' (옛 도곡중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5월만 해도 18억5000만~19억1000만 원 선에 거래됐는데 7월에는 20억 원~22억 원에 팔렸다. 현재 이 아파트는 21억~23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불과 2~3개월 사이에 1억~2억 원가량이 오른 것이다.

2006년 입주한 강남구 대치동 삼성1차 아파트도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이 단지는 거래가 뜸하다가 올해 6월부터 매수세가 불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전용 59㎡는 6월에 13억6500만~14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5억8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 호가는 현재 15억8000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2002년 입주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137㎡도 지난달 초 24억 원에 팔리며 기존 최고가(23억6000만 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담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가 오르자 구축 아파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가격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70th 교보증권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파보, 스톡봇) 이용 무료
* 로보서비스만 참여 가능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신용공여이자율 혜택 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먼 고객의 비회원 계좌개설 권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이벤트

해외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내 발생한 담보 대출건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이벤트 기간내 비회원 또는 은행연계 해킹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종합계좌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 인증
- 3 주소 등 정보 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 인증
- 6 신청완료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정 담보비를 미달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면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전도, 거래 시간, 환율, 과세방법 등 국내 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에 따라 투자자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대세 0.014%)의 주식매매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총합한계 기준 1개월, 무제한) 증권사 신규계좌연입 해외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 (비회원)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0HKD, 중국 10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벤트 적용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 고객에게 맞는 투자는 수익담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LH경기지역 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시각 약자 위해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공공주택 시범 사업 연내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인보다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 인지 약자를 위해 공공주택에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CUD란 개인 유전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눈의 질환에 따라 시각 인지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시각 인지 약자를 배려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만든 색채 디자인이다.

LH는 안전에 대한 생활 노출 빈도가 높고, 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뚜렷한 아파트

경관 CUD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고, 연내 이를 적용해 시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KCUD)와 지난달 30일 LH경기지역 본부에서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롯데건설 '60년史' 한 권에

창립 60주년 기념 사사 발간

롯데건설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사사(사진)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사사는 1959년 이래 롯데건설의 6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총 5개의 챕터로 나눠 하이라이트·히스토리·피플 스토리·파트 스토리·부록으로 구성된다.

하이라이트는 역사 화보와 롯데월드타워 소개가 담겨 있다. 이번 사사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히스토리 챕터는 굵직한 프로젝트의 연도별 기록과 역대 최고경영



자(CEO) 소개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피플스토리 챕터는 사회공헌·사내복지·미래비전, 파트 스토리는 CEO 대담과 부문별 좌담회 내용이 기록됐다.

사사는 총 340장의 단행본으로 제작됐다.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돼 5일부터 롯데건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2013년 카드 3사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KCB, 롯데카드에 47억 배상하라”

법원,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

소속 직원이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카드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롯데카드가 신용정보 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크레딧뷰로는 롯데카드에 4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롯데카드는 KCB와 2013년 카드사 고객 분석시스템(FDS) 업데이트 관련 컨설팅·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CB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은 컴퓨터 등을 통해 롯데카드 등 카드 3사 고객정보 1억 건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카드 등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롯데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정보 유출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CB는 박모 씨의 사용자로서 FDS 개발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KCB가 보안관리 교육, 개발 작업 중 카드고객 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는 유출 사고 수습 비용, 카드 재발급 비용 일부, 추가 인력 근무수당과 콜센터 좌석 추가 임차료 등 총 89억 원가량이다. 다만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롯데카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KCB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 수준(약 52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 용역잔대금 채권 약 5억 원이 소멸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47억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롯데카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외부 용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고객 식별 정보까지 포함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박모 씨가 컴퓨터 2대를 반입했음에도 통제·보안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수확의 기쁨 2일 오전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한 들녘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해들' 첫 수확 행사에서 한 농민이 콤비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지급

가구당 평균 122만원 받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79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474만 가구, 자녀장려금 105만 가구가 나타났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6조2314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473만 가구에 대해 5조300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3003억 원, 자

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지급 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장려금 가구당 평균 수급 금액은 1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지하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사업 LG U+ 낙찰자 선정, 위법 아니다”

법원, SKT가 제기한 소송 기각
“필수 규격 미충족, 단정 어려워”

SK텔레콤이 지하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사업(LTE-R)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LG유플러스가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SKT가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가 체결한 LTE-R 사업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5월 5호선 열차 LTE-R 사업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서울지방조달청은 사업을 공고하면서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했다. SKT는 A사와 공동수급체를, LG유플러스는 B사, C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위원회의 규격·기술 심사 결과 SKT는 합계 90.49점, LG유플러스는 92.31점을 얻어 모두 적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입찰 결과 LG유플러스는 SKT보다 약 20억 원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7월 LG유플러스는 통신용 중계기 등을 제조·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SKT는 △필수 규격·기술 미충족 △허

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LG유플러스가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 공통 규격으로 KC 인증과 3GPP에서 정한 최신 규격의 McP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제조사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됐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제안한 휴대용 단말기(HRM750)는 입찰 당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제품인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안했다”며 “제안 당시 휴대용 단말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T가 주장하는 규격·기술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필수 규격·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 사항(시스템·상세 규격)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요구 사항 중 SKT가 주장하는 특정 규격과 기술만 필수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추석 연휴 서울 버스·지하철 막차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안전·교통·물가·나눔·편의 분야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귀경하는 인파가 가장 많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인 13~14일에는 귀경객을 위해 버

스·지하철 막차 운영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서울, 청량리, 영등포, 용산, 수서)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강남, 동서울, 서울남부, 상봉)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다.

고속·시외버스(서울발 기준)도 평소보다 822대를 더 투입해 수송 인원을 대폭 늘린다. 1일 총 6001회 운행으로 13만 명의 수송능력(만차 기준)을 확보한다. 울폐미 버스와 심야 택시도 늘려 운행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BRAVO My Life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메르세데스-벤츠 전시부스 예상도.

사진제공 다임러미디어

새 차·새 로고·새 CEO... 베일 벗는 車의 미래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IAA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히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10일(현지 시간) 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2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매세'에서 열린다.

올해 모터쇼의 주제는 '드라이빙 투모로우(Driving tomorrow)'. 전동화와 소형차 중심의 다양한 새 모델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도 일부 엿볼 수 있다.

새로운 브랜드 로고와 첫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신임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업체들도 첨단 기술과 디자인 혁신으로 운전자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모델을 전시할 계획이다

◇독일차 안방 격전... 신차와 새 인물 관심 = 독일 한복판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번 모터쇼에서 독일차들의 격돌이 관심을 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전기차 등을 한데 모은 'CASE' 전략을 구체화한다. 여기에 새로 임명된 CEO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향후 브랜드 전략을 천명할 계획이다.

BMW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가장 전동화에 앞서 있는 만큼 다양한 새 모델과 2세대로 거듭난 4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운다.

폭스바겐은 이번 모터쇼를 통해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 나아가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전 세계 소형 해치백의 교과서인 골프의 8세대 신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확장 중인 한국의 현대차도 이번 행사에 나선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제작했던 1970년대 포니 콘셉트카를 21세기 전기차로 재해석해 궁금증을 불러모으고 있다.

◇CASE 전략 구체화하는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AG가 13년 만에 새 CEO를 임명했다.

디터 제체 회장의 후임으로 5월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CEO로 취임했다. 이번 모터쇼를 통해 공식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데뷔한 칼레니우스 회장은 다임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B.

10일부터 '드라이빙 투모로우' 주제로 메르세데스-벤츠 13년 만에 CEO 교체 대형 배터리 전기세단·더 뉴 GLB 눈길 BMW도 새 수장 맞아... 4시리즈 공개 엠블럼 바꾼 폭스바겐 8세대 골프 관심



8세대로 거듭난 폭스바겐 신형 골프.

러그룹 이사회 의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 회장을 맡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솔루션'을 앞세워 메르세데스-벤츠와 전동화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동화 제품 전략도 구체화한다. 앞서 벤츠는 2016 파리살롱을 통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율주행차(Autonomous) △스마트카(Smart car) △전기차(EV)를 엮어 'CASE'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후 전체적인 전략과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온 만큼 이번 모터쇼에서는 CASE를 보다 구체화한 제품 전략을 공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전기차 전용 모델 EQ의 국제무대 공식 데뷔를 비롯해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대형

배터리 전기 세단 EQV도 공개한다.

'친환경과 고성능의 공존'이라는 지향점에 따라 메르세데스-AMG의 라인업 확대에 대한 발표도 주목할 만하다.

메르세데스-벤츠 SUV 패밀리의 새로운 라인업인 더 뉴 GLB와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의 GLB 모델도 이번에 공개한다.

◇BMW와 벤츠 신임 회장의 모터쇼 성적표도 볼거리 = 독일 프리미엄 3사 가운데 가장 전동화 전략에서 앞서 나가는 BMW는 다양한 EV를 비롯해 4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BMW 4시리즈는 3시리즈의 경쾌함과 5시리즈의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두루 갖춘 틈새 모델이다. 2013년에 등장한 1세대는 점진적으로 쿠페(4도어 포함)와 컨버터블로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에 공개될 모델은 2세대에 해당한다.

3시리즈와 경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차체를 키우고 디자인적 차별화 요소를 곳곳에 심어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영원한 맞수 메르세데스-벤츠 신임 회장이 이번 모터쇼에 데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BMW 역시 '올리버 지프(Oliver Zipse)' 신임 회장이 등장한다. BMW그룹 생산부총괄 사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임 CEO에 대한 성적표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로고 공개하는 폭스바겐 = 폭스바겐은 사람이 아닌, 브랜드의 얼굴인 새 로고를 공개한다.

디젤 게이트 이후 쇠신 전략을 앞세운 폭스바겐이 '뉴 폭스바겐'이라는 새 전략을 앞세우고 엠블럼도 뜯어고치는 것.

입체감을 살린 3D 타입의 로고가 넘쳐나는 세상에 폭스바겐은 평면적 요소를 바탕으로 2D 타입의 새 로고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순수전기차 ID.3도 선보이며 전동화 전략에 한 걸음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 초 양산에 나설 8세대 골프의 실제 모습이 이번 모터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홀수 세대에서 파워트레인과 기술적 진보를 추진하고, 짝수 세대 때 디자인을 화끈하게 바꾸는 전략을 감안하면 8세대 골프는 이전과 궤가 다른 새 디자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개된 투아렉과 티구안 등의 전면 모습과 일맥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폭스바겐 골프는 1974년 초대 모델이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누계 3500만 대가 팔린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니의 변신

현대차, 1970년대 포니 재해석 전기차 콘셉트카 '45' 공개예정

현대자동차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은 EV 콘셉트카 '45'를 공개한다.

EV 콘셉트카 45는 1970년대에 공개된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디자인을 재해석해 만들었다.

앞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포니의 밑그림이 된 포니 쿠페를 형상화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추진 중인 차세대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담았다. 회사 측은 "현대차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콘셉트카는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의 개념을 담았다. 이는 고객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차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

상세 제원은 9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형화 추세에 걸맞게 이번 행사에서 △신형 i10과 △i10 N 라인 및 일렉트릭 레이싱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1925㎡(약 580평)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EV 콘셉트 45를 전면에 내세운다.

친환경차 구역에는 △넥스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전시한다.

이어 고성능차 구역을 따로 마련하고 고성능 SUV 디자인을 담은 △투싼 N 라인 △i30 패스트백 N △i30 N 프로젝트C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혁신금융을 어시스트하다



꿈을 가진 벤처 창업가들이
혁신을 드리블하고 한계를 넘어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길 바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지원 사업으로
함께 꿈을 키우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혁신금융협의회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출범

혁신금융 20조원 지원

2021년까지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 대상 20조 지원 예정

하나벤처스 설립

국내 최초 신기술 금융사 설립 및 1천억 펀드 조성 예정

롯데백화점 | 초고가 한우 선물세트

최상위 NO.9 등급 135만원짜리 한우

롯데백화점은 올해 추석을 맞아 13일까지 초고가 한우 선물세트를 내놨다.

롯데백화점이 초고가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한 것은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기간 롯데백화점에서 준비한 135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는 준비 물량 100세트가 완판됐으며, 세계 최정상(삼패인+코낙) 세트 역시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준비 물량 10세트가 다 팔렸다.

올해 추석에도 롯데백화점은 초고가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1++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NO.9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고기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등심, 안심, 살치살 등 구이용 부위를 엄선해 구성한 'L-NO. 9 세트(총 6.5kg, 100세트 한정)'를 135만 원에 선보인다. 아울러 울릉도의 산과 바다, 바람이 키워 '약소'라 불리는 우리 고유의 한우인 울릉최소를 준비해 '울릉최소 명품 세트(총 4.2kg, 200세트 한정)'를 88만 원에 선보인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배합 사료 대신 전통식으로 볶짚, 콩깍지 등으로 여물을 끓인 사료를 먹여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만 엄선한 '화식한우 명품 세트(총 3.6kg/200세트)'를 67만 원에, 경남 산청 지리산에서 재배한 유기농 사료를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넓은 축사에서 건강하게 자란 유기농 한우로 구성된 '산청 유기농 한우 명품 세트(총 3.6kg/200세트 한정)'를 66만 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 추석 선물세트

가격·종류 다양... 건강기능식품 '풍성'

홈플러스는 추석을 맞아 전국 140개 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갔다.

추석 다음날인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1200여 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트렌드인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을 30% 늘렸으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 해당 가격대인 5만 원 이하의 상품과 1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비중을 20% 이상 확대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상품 위주로 마련했다. △정성가득 사과·배 혼합세트(국내산, 3만9900원) △GAP 사과·배 혼합세트(국내산, 4만9000원) 등 사과와 배를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으며 △망고 세트(태국산, 5만4000원) 같은 이색 상품도 마련했다.

정육 선물세트 역시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갖춘 상품들로 출시했다. △LA식 꽃갈비 냉동 세트(미국산, 11만2000원) △농협안심한우 정육 갈비



혼합 냉동세트(한우, 15만9000원) 등도 판매한다. 건강기능식품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정관장 홍삼원(50ml*30포, 3만3000원, 3+1) △중근당건강 락토피생유산균골드(50포*2입, 2만1790원) 등 2만~3만원대 가성비 상품과 함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10ml*20포, 5만 2000원, 4+1) △CJ 한뿌리 흑삼과 흑마늘(100ml*6입+50ml*12포, 6만 5000원, 1+1) 등 실속형 상품도 내놨다.

애경산업 | 전통문화유산 선물세트

조선시대 '산수화훼도' 입은 샴푸

전통문화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가치가 커지면서 전통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추석을 맞아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을 담은 '문화재 에디션 승무'와 '케라시스 화원산책'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50주년을 기념한 전통 춤 '승무'를 담은 '문화재 에디션 승무' 선물세트는 한국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승무의 정수인 정중동(精中動)을 디자인에 담아 선물세트에 전통유산의 기념비적인 의미를 담았다. 문화재 에디션 승무는 신진 일러스트 작가 야미(AMI)와의 디자인 협업을 통해 승무의 느린 듯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의 춤사위를 현대의 시각으로 색채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신선하게 디자인한 제품을 제공하고, 신진 아티스트에게는 본인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담았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조선시대 화가 신명연의 작품 '산수화훼도'를 담은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케라시스 화원산책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진행한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화원산책'을 디자인으로 접목시켜 선물세트의 품격을 끌어올렸다. 화원산책은 꽃 그림에 능했던 화가의 화사하고 담백한 색채, 정교하고 생생한 묘사, 대담하고 감각적인 구도를 엿볼 수 있다.

이마트 | 피코크 선물세트

5만~10만원 구성에 40% 카드할인도

이마트는 13일까지 전국 142개 점포에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행사 기간 고객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해 행사카드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 원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올 추석을 맞아 금액대별로 이마트만의 차별화된 단독 상품을 선보여 고객 발길을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대표 상품으로는 '도스코파스 까버네쇼비농 +레드블렌드'를 9800원에 판매한다. 이 상품은 까버네쇼비농(750ml) 1병, 레드블렌드(750ml) 1병으로 구성된 실속형 와인 선물세트다. '피코크 제주혼합세트'(정상가 4만9800원)도 카드 할인가 3만9840원에 준비했다. 제주참기름(250ml) 1개, 제주흑돼지햄(200g) 4개, 제주돼지햄(200g) 2개로 구성된 제주지역 특선 선물세트다.

5만~10만 원 선물세트도 알차게 구성했다. '피코크 고당도 장수사과'는 '피코크 시그니처 세트' 대표 상품으로 카드 할인가 7만9200원에 판매한다. 이 상품은



패키지를 블랙 계열로 통일한 '피코크 시그니처 세트'의 대표 상품이다. 올 추석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잎부세굴비 세트'는 카드 할인가 7만200원에 마련했다.

10만~30만 원 선물세트 대표 상품으로는 등심 1등급 구이용 1kg과 국거리·불고기 각 1kg 등 한우 3kg으로 구성된 '피코크 한우냉장 1호'를 정상가 25만 원, 카드 할인가 22만5000원에 판매한다. '명품 영광 참굴비 2호'는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된 12만 원에 판매한다.

롯데홈쇼핑 | 추석 마음 한상

혼족 위한 명절 기획 간편식 한상차림

롯데홈쇼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일까지 전국 산지 특산물, 프리미엄 먹거리, 가정간편식 등을 선보이는 '추석 마음 한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사과·배 등 전통적인 과일 대신 다양한 산지 특산품과 전 세계 프리미엄 먹거리 상품 편성을 확대했다. 롯데홈쇼핑 대표 프로그램 '최유라쇼'에서 5일 오후 8시 40분에 프리미엄 시푸드 뷔페 '바이킹스 워프'의 '할 킹크랩'과 스페인 고급 수제햄 '몬테사노 하몽'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또 제주도 '왕망고'를 비롯해 경북 김천 '샤인머스켓', 부산 '맛의 명태자 명란젓' 등 전국 이색 특산품도 특집 기간 연이어 소개한다. 6일 오후 5시 40분에는 고급 정육세트 '황성축협한우 정육세트'(1++)를 선보인다.

간소화되는 명절 풍속도와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혼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도 확대한다. 3일 업계 최초로 '홍진경 한상차림 세트'를 론칭한다. 대표적 명절 음식인 갈비찜, 잡채, 모듬전으로 구성된 기획상품이다. '김나운의 요리조리'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브랜드 '김나운 더 키친'의 '연양식 불고기 와규한판', '손질새우', '떡갈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부모님을 위한 '이경제 녹용', '힐링스토리 타히티 노니주스', '비타민하우스 크릴오일' 등 건강 선물세트와 '원팻 멀티 압력쿠커', '젠스텐 밀폐용기' 등 인기 주방기기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KGC인삼공사 | 정관장

스틱·정환·파우치... 골라먹는 홍삼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는 명절 선물 베스트셀러다. 가장 저렴한 정관장 다보록 '여유요편'(4만9000원)에서부터 '감사은편'(35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마련됐다.

두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돼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여러 종류의 홍삼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감사정편'(22만 원)은 정관장의 대표상품인 홍삼농축액 홍삼정과 섭취가 편리한 홍삼정환, 파우치 형태의 홍삼탄으로 구성돼 한번에 정관장 홍삼의 대표 제품들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여유랑편'(12만 원)은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홍삼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제품으로 홍삼정 성분을 그대로 담은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홍삼에 꿀을 넣어 스틱형으로 만든 홍삼정육고로 구성돼 휴대와 보관에 매우 뛰어나다.

정관장의 품격은 높고 부담은 줄인 제품들도 인기가 높다. '감사정편'(4만9000원)은 부담 없는 가격에 홍삼탄과 홍삼정환 등 인기 제품으로 구성하



고, 정관장 다보록 선물세트의 품격은 그대로 살린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행사를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진행한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관장 선물세트 브랜드 '다보록' 22종을 비롯해 홍삼탄, 홍삼달임액, 화애라,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등 인기 제품 구매 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한성기업 | 크래미

크래미 사면 결식아동에 도시락 기부

한성기업은 추석 명절을 맞아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의식 있는 소비를 이끌기 위한 기부 연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한성기업의 대표 상품이며, 국민 간식으로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크래미를 활용한 이번 기부 프로젝트는 크래미 제품의 피지를 활용해 한성기업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서 기부활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점을 알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활동이 바로 기부로 동참하게 돼 의미가 있다.

현재 행복얼라이언스의 기부 연계 상품은 한성기업, 비타민엔젤스 등 8개 기업과 협력한 상품들이다. 소비자들이 한성기업 크래미를 비롯해 해당 상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일정 부분이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으로 기부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크래미의 주 원료인 명태에 다량 함유된 단백질 미오신의 긍정적인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운동 후 간식이나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찾고 있다.



한성기업 관계자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서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와 결식아동 돕기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기관, 개인의 참여와 자원을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2016년 출범했다. 한성기업 등 45개 기업이 장애, 교육, 건강 3대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금강제화 | 슈즈·상품권

한국인 발에 잘 맞는 '헤리티지 리갈'

금강제화는 추석을 맞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상품을 추석 선물로 엄선했다.

금강제화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선물로 최고급 클래식 슈즈 '헤리티지'를 추천한다. 헤리티지는 금강제화에서 운영되는 여러 브랜드 중 최고급 수제화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만큼 한국인의 발에 맞춘 라스트로 편안함은 물론 선물을 받는 사람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1999년 대표 남성화 브랜드인 '리갈(Regal)'의 고급화 라인 한정판을 시작으로 출시한 헤리티지는 편의성과 심미성, 기능성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수제화로 출시 당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정식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

어머님들에게는 활동하기 편리하고 신었을 때 가벼운 느낌의 컴포트 슈즈가 좋다. 금강제화의 대표 컴포트 슈즈 라인인 바이오 소프(biosof)는 부드러운 양가죽과 뛰어난 쿠션감이 느껴지는 내피를 사용해 편안한 착화감의 슈즈를 출시했다. 캐주얼이나 정



장 차림 모두에 잘 어울리는 세미 캐주얼 슈즈로 가벼운 발포장을 사용하고, 논슬립 기능의 바닥창을 더해 미끄러운 길에서도 안전하게 신을 수 있어 좋다.

연령대나 취향 걱정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금강상품권'은 매년 추석을 포함한 명절 및 특별한 날에 어김없이 껴주는 인기 선물이다. 상품권 가격대는 5만, 7만, 10만, 15만, 20만, 30만, 50만 원으로 다양하다.

비타민하우스 | 시베리안 차가버섯

영양분 12배 농축 면역효과 '엄지척'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 뛰어난 면역 조절 효과가 있어 항암버섯이라 불린다. 시베리아 등 북위 45도 이상 척박한 극동지역의 추위를 견디고 자작나무의 영양을 흡수하며 15년 이상 성장하는데, 차가버섯을 채취하면 자작나무가 죽기 때문에 '자작나무의 심장'이라고도 한다.

차가버섯의 영양 성분 응집체인 크로모겐 콤플렉스는 다량체인 베타글루칸, 이노시톨,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SOD,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크로모겐 콤플렉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양이 풍부하다.

종전에는 차가버섯 원물을 구입해 직접 달여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최근 영양분을 12배 농축한 동결건조 분말 형태로 차처럼 먹을 수 있는 간



편한 차가버섯 제품이 출시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차가버섯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항공 직수입한 차가버섯으로 주요 영양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동결 건조한 제품이다. 12배 농축으로 높은 영양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크로모겐 콤플렉스 52% 이상, 베타글루칸 167.48mg/g을 함유하고 있어 유효 성분 함량이 타사 제품에 비해 높은 것이 특

징이다. 또한, 물에 잘 녹아 차처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김삼국 비타민하우스 대표는 "꾸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유효성분인 베타글루칸과 크로모겐 콤플렉스 수치를 검사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함량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동원F&B |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

나트륨 함량 낮추고 풍미 더한 '리챔'

동원F&B는 올 추석 '짜지않아 딱 좋은' 프리미엄 캔햄 '리챔'을 중심으로 한 캔햄 선물세트를 강화한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동원F&B는 '더욱 건강한 명절 선물세트'를 콘셉트로 스테디셀러인 '동원참치 선물세트'와 함께 '리챔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리챔은 돼지 앞다리살로 만들어 더욱 부드럽고 마블링이 풍부한 캔햄 브랜드다. 리챔은 최근 나트륨 저감화를 통해 리챔 고유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기존 100g당 840mg에서 670mg으로 20% 이상 대폭 낮춰 건강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동원F&B는 이번 추석 선물에 '리챔 골드마블'을 처음 선보인다. '리챔 골드마블'은 돼지고기 일색이던 기존 캔햄과 달리, 돼지고기 함량을 낮추고 소고기를 더해 새로운 풍미를 담은 프리미엄 캔햄이다.

1984년 탄생한 동원 선물세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세트를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식품 선물 세트다. 이번 추석 대표적인 선물세트로는 실속 복합 세트인 '동원뉴리챔 100호(동원참치살코기 135g



12캔, 리챔 오리지널 200g 4캔)'와 참치단독세트 '진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4캔, 고추참치 150g 4캔, 야채참치 150g 4캔, 김치짜개용참치 150g 4캔)', 리챔단독세트 '리챔 3호(리챔 오리지널 200g 6캔, 리챔 오리지널 340g 6캔)' 등이 있다. 고급세트인 '명품혼합 6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2캔, 리챔 오리지널 200g 8캔, 포도씨유참치 150g 12캔)'와 김 세트인 '양반김 혼합 3호(들기름김 8봉, 동원건강 요리유 900ml 1병)'도 많이 판매된다.

SPC |眞 카스테라

100일 숙성 밀가루로 식감·맛 높여

파리바게뜨는 신선한 원료와 30여 년 동안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카스테라의 식감과 맛을 한 단계 높은 '시간의 정성 진(眞) 카스테라'를 선보였다.

'시간의 정성 진(眞) 카스테라'는 자체 연구소 테스트 결과 가장 깊은 풍미를 낼 수 있도록 백일간 숙성시킨 전용 밀가루와 강원도산(産) 목초란, 아카시아 벌꿀 등 엄선된 원료를 배합해 소나무 틀에서 숙성 후 구워낸 카스텔라다. 기존 제품에 대비해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외에도 △초가를 포도의 맛을 담은 '포도 카스테라' △롤케이크에 사과를 듬뿍 넣어 아삭아삭한 식감이 조화로운 '애플롤' △잘 익은 밤으로 고소한 맛을 더한 '밤파운드' 등도 출시했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부드러운 마들렌 속에 통밤을 풍성하게 채운 '통밤마들렌' △레몬 제스트(겉질의 노란 부분)를 넣어 상큼한 레몬의 풍미가 은은하게 배 '레몬마들렌' △통팥과 밤을 가득 채운 '통



팥 밤만쥬'도 내놨다.

파리바게뜨의 자체 커피 브랜드인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에서는 △티라미수 롤 △초코바나나롤과 전통 다과 등을 선물세트로 구성했다.

티 브랜드 '티트라(Teatra)'도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티트라 선물세트는 △'티트라 영그레이' △'티트라 프루티하동' △'티트라 커즈마인' △'티트라 런마테' 등 4가지 차로 구성됐다.

참다한홍삼 | 홍삼

통째 갈아 더 진한 홍삼... 20% 할인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인 '참다한홍삼'은 일반 홍삼액과 차별화된 제조법을 사용해 고급 명절 선물로 통한다. 참다한은 홍삼을 물에 넣고 달이는 물 추출 제조법이 아닌, 자체 개발한 '분말액 방식'을 이용해 제품을 만든다. 홍삼을 물에 달이지 않고 통째 갈아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통째 갈아 만든 홍삼에는 모든 영양소가 온전히 담겨 있다. 실제로 '최신인삼 제배' 등 학술지에 따르면 홍삼은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47.8%)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성분(52.2%)이 각각 절반씩 들어 있어 통째로 먹어야만 온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버리는 것 없이 홍삼을 통째 넣는 참다한 제품의 경우 영양 함량이 획기적으로 높다. 기성품 대비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홍삼의 수용성, 불용성 영양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기에 맛과 빛깔도 더 진하다. 아울러 참다한 제품은 인체 흡수율이 매우 높다. 홍삼을 분쇄할 때 일반 분쇄 기술이 아닌 초미세 공법을 쓰기 때문이다. 초미세 공법은 홍삼을 갈 때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 해



당하는 7-8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초미세화시키는 데, 이렇게 하면 홍삼의 단단하고 질긴 식물성 세포벽이 분해돼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파우치형 제품인 '참다한 프리미엄'을 비롯해 편의성을 강화한 '참다한 홍삼정 프리미엄 스틱', 어린이용 '참다한 홍키즈' 등은 재구매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참다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200개 직·가맹점과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23일까지 최대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 | 헤라 시그니아 라인

수선화의 생명력으로 모공·주름 케어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추석에 맞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추석 기획 세트를 선보인다.

헤라 스킨케어의 정수를 담은 '시그니아 라인'은 수선화의 강인함으로 피부의 눈부신



대로의 맑고 건강한 에너지를 담은 나르시스 워터가 공통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다. 아모레퍼시픽 50여년의 연구와 식물세포 연구 노하우를 담아 탄생된 헤라 시그니아 크림, 세럼

생명력을 깨우는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메마른 땅에서도 구근 위의 꽃과 줄기를 잘라버리고 물을 주면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수선화의 생명력을 담았고, 수선화의 맑고 건강한 에너지가 강력한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효능으로 다시 피어나는 젊은 피부를 선사한다. 시그니아 워터, 시그니아 에멀전, 시그니아 세럼 및 시그니아 크림 4종과 그 외 풍성한 증정품으로 구성됐다. 시그니아 워터와 에멀전에는 수선화의 꽃, 줄기, 잎, 뿌리 모두를 사용해 풍부한 보습과 항산화 성분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추출해 수선화 천연 그

은 각각 한 병에 농축된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응축되어 있어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헤라 시그니아 4종 기획세트 가격은 68만5000원이다.

헤라 아쿠아볼릭 2종 기획세트는 계절 변화 및 건조한 도시 생활로 인한 피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주는 베이직 보습 라인이다. 잦은 온도, 습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분 공복 현상을 '아쿠아 토닝' 기술을 통해 집중 케어해줘 생기 있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한다. 헤라 아쿠아볼릭 2종 기획세트 가격은 8만8000원이다.

LG생활건강 | 오후 더 퍼스트 제너츄어 2종

브랜드별 인기 상품 모아 알찬 구성

LG생활건강의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오후'는 추석선물세트로 '오후 더 퍼스트 제너츄어 2종 기획 세트'를 마련했다. 더 퍼스트 제너츄어 라인의 스킨, 에멀전 정품 외에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줄 더 퍼스트 제너츄어 라인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풍성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더 퍼스트 제너츄어 라인의 핵심 성분인 시그니취 29 셀이 지친 피부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생명 에너지의 정수라 불리는 모란추출물이 더해져 럭셔리 토털케어를 완성해준다. 스킨소프너 150ml, 에멀전 140ml와 함께 스킨소프너 20ml, 에멀전 20ml, 셀에센셜스 22ml, 크림 인텐시브 7ml, 앰플 어드밴스드 5ml, 폼 클렌저 50ml를 증정품으로 구성해 18만 원대에 선보인다.

생활용품 부문의 대표적인 선물세트 '쓰임가득 23호'는 LG생활건강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선물세트로, 올해 추석에는 산뜻함을 강조해 제품 구성을 새롭게 단장했다. 주요 제품인 오가니스트 샴푸는 제리와 로즈마리 향으로 구성해 향기를 중시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죽염 치약을 더해 전하는



이의 품격까지 더해졌다. 가격은 2만3900원이다.

'쓰임가득 27호'는 품격 있는 한방 제품을 선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탄생한 선물 세트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죽염 치약과 리엔 로열젤리 샴푸·컨디셔너, 비누를 통해 한방 콘셉트를 담았다. 또 내추럴 브랜드인 오가니스트 모로코아르간 샴푸와 프리미엄 탈모 증상 완화 제품인 닥터그루트와 함께 구성돼 가치를 높였다. 한방 제품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가격은 2만7900원이다.

하이트진로 | 일품진로 1924

'매년 조기 완판' 프리미엄 증류 소주

하이트진로가 한가위를 맞아 프리미엄 증류 소주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일품진로1924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장 대중적인 기호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로, 2014년 창립 90년 기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재출시 요구에 따라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출시한 제품이다. 특히, 일품진로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하면서 지속적인 시장 분석과 다년간의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 완성했다.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소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조기 완판을 기록했으며, 가격 부담은 적고 품질 만족도는 높아 명절 대표 선물로 인기가 높다.

이번에 판매되는 한가위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1924(375ml) 2병과 전용잔(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락 잔 2개)으로 구성했다. 은은한 금빛의 실크 원



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박스로 포장해 선물 가치를 더했다. 다양한 명절 음식과 일품진로 1924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용법을 담은 리플릿을 함께 제공하며, 9월 첫째 주부터 전국 홈플러스 등에서 한정수량 판매된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일품진로 1924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소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선물"이라면서 "좋은 날,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주류 | 백화수복

국산 쌀로 빚은 75년 전통 차례주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75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로,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단일 브랜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주 생산량을 자랑하는 롯데주류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백화수복은 국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다.

100% 국산 쌀로 만들고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해 사용하며,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병목 캡셀(병뚜껑을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재)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운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유의 깊은 향과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ml, 1l, 1.8l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소비자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700ml 4900원, 1l 7100원, 1.8l 1만 1000원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75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어 만든 청주"라며 "가격도 5000원대에서 1만 원대까지 합리적이라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기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 스텔라 아르투아

95개국서 판매되는 '세계 4대 맥주'

오비맥주가 수입, 판매하는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추석 명절을 맞아 맥주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이마트 전국 매장을 통해 캔 맥주로 구성된 실속형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이라는 문구를 새긴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스텔라 로고와 별을 배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텔라 아르투아 500ml 캔 6개와 한정판 헬리스 잔 1개로 이루어진 스텔라 아르투아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는 1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 매니저는 "명절 선물로 전통주나 와인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맥주도 충분히 가족 모임에 잘 어울리는 주류"라며 "예부터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즐겼던 명절에 스텔라 아르투아와 맥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판매되는 벨기에 1위 맥주이자 세계 4대 맥주로 기본 좋은 쌀쌀한 맛과 청량한 끝맛이 어우러져 다른 유럽 라거들과 차별화되는 오랜 전통의 벨기에 필스너 맥주다. 성배 모양의 전용잔인 헬리스에 스텔라만의 9단계에 걸친 음용법을 따라 마시면 최상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 | 발효홍삼

'발휘' '진삼환' 온 가족 면역력 증진

한국야쿠르트가 추석을 맞아 홍삼 제품에 대해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9월 말까지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휘' 3종 제품과 '발효홍삼정이지', '발효홍삼K 키즈5+' 등에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홍삼 제품으로는 8월 출시한 '발휘 발효홍삼K', '발효홍삼 전진늑보', '발효홍삼 진삼환'이 있다.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휘'의 주원료인 에이치와이(HY) 발효홍삼 농축액은 100% 유산균으로 발효한 홍삼 유효성분의 흡수와 유지 우수성을 국내 최초로 인체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발휘 발효홍삼 K'는 HY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포농축액 등 12종의 한방 원료를 최상의 조건으로 배합해 빠른 흡수와 유지력을 자랑한다. 50ml의 액상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다.

'발효홍삼 전진늑보'는 발효홍삼과 녹용을 넣은 프리미엄 환 제품이다. 기존 '발효홍삼 황실기력단' 대



비 녹용 함량을 3배 늘리고 환은 홍삼으로 한 번 더 코팅해 효과를 강화했다.

'발효홍삼 진삼환'은 한 알에 발효홍삼을 그대로 담아 홍삼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여기에 아가시 아꼴을 함께 넣어 부드러운 맛으로 온 가족이 먹기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한진생 홍삼정', '한진생 홍삼순액100', '한진생 홍삼양갱' 등 인기 제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종근당 | 벤포벨

고함량 활성비타민 함유... 피로 해소 탁월

최근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육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 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한다.

종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D·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르게 발현되며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 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 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 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됐다. 유혜은 기자 euna@

동아제약 | 클리덴트

어르신 틀니 살균... 든든한 구강 지킴이

틀니는 저작 등 치아 기능을 보완해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잘못된 관리하면 입속 염증이나 세균감염 등으로 구강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폐렴이나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실제 국내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이 틀니 사용 이후 의치성 구내염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60세 이상 틀니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틀니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틀니 사용자의 69.6%는 틀니를 사용한 후 잇몸 염증, 잇몸 출혈, 구취 등 다양한 구강 증상을 경험했다.

자연치아를 닦을 때 쓰는 치약으로 틀니를 닦는 것은 좋지 않다. 틀니는 대부분 레진 재질이라 강도가 자연치아보다 약하다.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제 성분

에 의해 틀니 표면에 금이 가고 마모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틈새로 구내염 및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틀니는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군 후 탈·부착하고, 뽀 때는 틀니를 천천히 흔들며 제거한다. 틀니를 씻을 때는 부드러운 재질의 틀니 전용 칫솔과 틀니 세정제를 사용한다.

틀니 세정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아제약은 틀니 세정제 '클리덴트'를 선보였다. 클리덴트는 틀니에 집착된 얼룩과 플라그를 제거하며 구취 유발균을 살균한다. 단백질 분해 효

소성분인 에버라제가 틀니에 남아 있는 단백질을 분해 및 제거해 틀니를 더욱 깔끔하게 세정해준다. 민트향을 더해 세정 후 틀니를 사용했을 때 입 안 가득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미약품 | 나인나인

한 알로 비타민D 하루 섭취량 해결

한미약품의 종합 미네랄비타민 영양제인 '나인나인'은 국내에 출시된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은 성분인 28종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이다.



나인나인은 육체 피로 회복, 병중·병후 비타민 공급, 눈·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준다. 특히, 나인나인은 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인 비타민D 성분 함유량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750IU가 함유돼 있다. 비타민D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며,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인나인에는 비타민D를 포함해 비타민 13종, 미

네랄 12종이 함유됐으며, 생리활성 성분인 콜린타르타르산염, 오로트산수화물, 우르소데옥시콜산 3종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나인나인 '정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한미약품은 생산하는 전 제품에 RFID를 적용해 불법 및 가짜약, 유통기간 임박 제품 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RFID는 태그(Tag) 안에 제품 정보를 담아 놓고 무선주파수를 통해 이를 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나인나인은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하루 한 번, 한 정씩 복용하며, 포장 단위는 100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JW중외제약 | JW중외파워루테인A

PC 사용 잦은 직장인 시력 보호

JW중외제약은 환절기 건조한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 성분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JW중외파워루테인A'는 인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꽃인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루테인을 비롯해 비타민 A가 기능성 원료로 함유된 제품이다.

루테인 추출 과정에서 증류 공법 기술을 적용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며, 하루 한 캡슐로 1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어 간편하게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제품의 주원료인 루테인은 노화로 감소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성분으로, 체내 합성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충해줘야 한다.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황반부에 밀집한 루테인은 20

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년층뿐만 아니라 과도한 모바일과 PC 사용으로 눈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JW중외파워루테인A'는 JW중외제약 공식 쇼핑몰 제이엘데이와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일동제약 | 아로나민골드

3년 연속 매출 1위 '국민 피로 회복제'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는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눈의 피로, 신경·근육·관절통 등을 개선하는 활성비타민 영양제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어의 연 매출액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브랜드다.

아로나민골드에는 활성비타민B1인 푸르셀티아민을 비롯해 활성비타민B2, 활성비타민B6, 활성비타민B12 등의 활성비타민B군과 비타민C, 비타민E 등의 유효성분이 들어 있다. 활성형 비타민은 일반형 비타민에 비해 체내 흡수와 조직 이행이 잘되고, 지속 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아로나민골드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대사, 신경의 작용 및 유지 등에 관여하는 비타민B 4종이 모두 활

성비타민으로 구성,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성분을 적당량만큼 담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돕는다'는 아로나민의 철학과 '일일 영양분 기준치' 등을

고려해 성분 함량 및 용법 용량을 적절히 설계했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골드 외에도 △비타민C와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을 보강한 아로나민씨플러스 △22종의 유효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눈 영양제 '아로나민아이' △성분 종류 및 함량을 확대한 고함량 비타민제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 등 시리즈 제품을 출시해 다양한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유한양행 | 뽀콤씨파워

혈액 순환·면역력 개선 환절기 활력 충전

환절기에는 큰일교차 때문에 감기와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특히 바쁜 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현대인들은 신체 리듬이 무너져 만성 피로, 수면장애, 성인병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을 위해 적절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 등을 챙겨 먹고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비타민 중에서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B군(비타민 B1, B2, B6, B12, 엽산 등) 및 비타민 C가 효과적이다. 비타민 B군은 주로 에너지 대사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도 돕는 역할을 하므로 기력이 부

족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올 때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B1은 근육통, 눈 피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2는 구내염, 구내염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활성산소 작용에 좋은 비타민C는 지치기 쉬운 휴가철 활력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타민D는 피로도 감소에 효과가 있다.

유한양행이 새로 선보인 '뽀콤씨파워'정은 비타민B군 3종(B1·B2·B6)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비타민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비타민D 함유로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의 뼈 건강 및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E 함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함께 항산화 효과를 높였다. 유혜은 기자 euna@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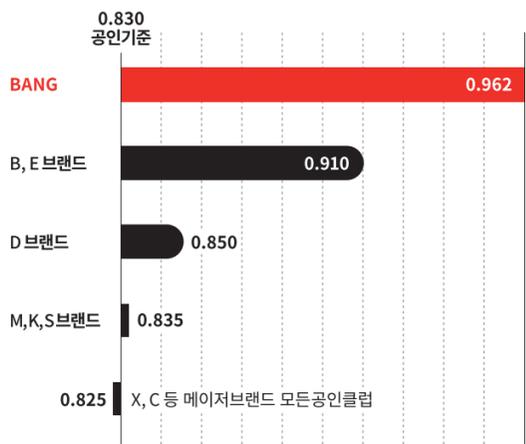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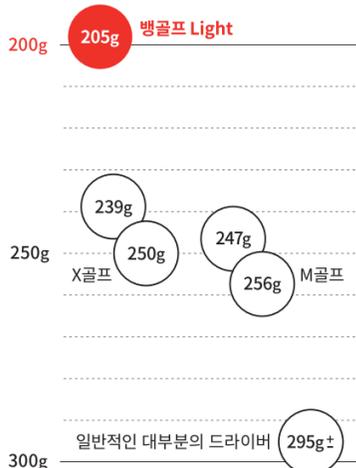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기업 분쟁, 사후대처 하려다 치명적 손해 발생”

최재용 법무법인 바른 기업자문그룹 변호사

법률시장 정체로 송무 분야 한계, 자문 영역으로 눈 돌려 “M&A 등 의사결정 때 사전 법률자문 통해 안전장치 해야”

로펌이 변하고 있다. 법률 시장이 정체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양새다. 송무 강자로 불리는 법무법인 바른도 자문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송무 분야 만으론 한계라고 느껴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업자문그룹이다.

바른의 기업자문그룹은 △M&A·기업 지배구조 △국제거래·투자 △기업금융·금융거래 △이머징마켓(중국·아세안·북한·러시아) △에너지·인프라 △국제 중재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윈스턴 법률 서비스로 효율적인 자문을 진행한다.

최재용(49·사법연수원 38기·사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의 법률리스크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

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사전적 법률 자문에 대해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사전 법률 자문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처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며 “특히 영미계 회사들은 사전적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생각해 기업의 경영자가 변호사 출신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A주식회사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을 말하면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일화는 기업이 사전에 받는 법률 자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그는 “A사가 B사 자회사의 자본 100%를 인수하면서 기업 실사와 주식양도계약



서 작성을 최대한 간단히 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토 결과 진술·보증 조항 규정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보여 A사에 강력히 권고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진술·보증 위반 사건이 발

생해 A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사후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앞서 계약서에 반영한 진술·보증 조항의 책임 제한 규정 덕분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좋은사람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소수주주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법원의 소수 주주권 인정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는 “실무상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사건이 주류를 이뤄 시간의 긴급성 때문에 하급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참 좋은 여행 사례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례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나친 전문화는 담당 분야 외의 다른 법률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기업자문그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터디 모임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한국코카콜라 첫 여성 CEO 최수정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 코카콜라가 최수정 마케팅·영업기획상무를 1일자로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신임 사장은 한국 코카콜라 사장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이자, 브랜드매니저에서 시작해 대표이사가 된 첫 번째 내부 발탁 인사이기도 하다.

미국 UCLA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전공한 최 사장은 삼성 미국 법인과 한국 마스 브랜드 매니저를 거쳐 2006년 한타 및 스프라이트 브랜드 매니저로 입사했다. 이후 탄산 브랜드 총괄 매니저를 거쳐 2013년 마케팅 상무로 임명됐다. 지난해부터는 마케팅 외에 영업 기획 및 관리 업무까지 총괄하며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 주요 브랜드의 안정적인 성장과 씨그램, 조지아커피, 토레타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웃들 기자 flowerslee@](#)

한국릴리, 알베르토 리바 신임 사장

한국릴리는 알베르토 리바 전 엘란코 중국지사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알베르토 리바 신임 사장은 제약업계에서 24년간 경험을 쌓은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다. 2006년 일라이 릴리에 입사해 미국과 이탈리아, 중국 지역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미 서부 지역 1차 의료 기관 신경계통 영업부의 빠른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일라이 릴리 이스라엘 대표를, 2014년부터는 5년간 일라이 릴리의 동물약품 사업부인 엘란코의 중국 지사 대표를 역임했다. 알베르토 리바 신임 사장은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했으며, 프랑스 INSEAD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구분환 “허브공항 경쟁, 넘볼 수 없는 우위 선점”

인천공항공사 ‘비전 2030’...항공운송 1위·매출 5조 목표

“글로벌 공항산업 리더인 벨류 크리에이터(Leading Value Creator)’라는 비전 슬로건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항공운송 세계 1위, 매출액 5조 원의 글로벌 공항전문그룹으로 도약하겠다.”

구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 비전 2030 선포식’을 갖고,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여객에게 최상의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기여도 55조 원, 고용창출 기여도 101만 명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

듭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제항공운송지표(ATU) 세계 1위 공항 도약 △매출액 5조 원 달성 △국민경제 기여도 55조 원 달성 △고용창출 기여도 10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인천공항을 연간여객 1억2000만 명이 이용하는 초(超)격차 공항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거점이 되는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분환 사장 및 임직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상주기관 등 항공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전 2030 선포식’에서 구분환(왼쪽 여섯 번째) 사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신비전 2030’은 4월 16일 공사 제8대 사장으로 취임한 구분환 사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주얼 찬이공항, 중국 다싱 신공항 오픈 등 주

변국 공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전 세계 허브공항 경쟁에서 인천공항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선점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김문호 기자 kmh@](#)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17명 보령제약 예산 신생산단지 견학

보령제약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17명이 보령제약 예산캠퍼스를 방문해 신생산단지를 견학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한 연수생은 라오스, 미얀마, 몽골,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스리랑카, 가나 등 14개 국가의 의사 및 보건정책 관계자들이다.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들이 보령제약 생산동을 둘러보며 이삼수(왼쪽 두 번째)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2007

년 개설된 해외 보건의료인력 초청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제조민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 ‘마르퀴스 후즈 후’ 세계판 등재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민(사진) 삼성디스플레이 환경안전팀 그룹장(부장급)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마르퀴스 후즈 후 세계판 2018-2019’에 등재됐다.

마르퀴스 후즈 후는 영국 케임브리지 국



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연구소(ABI)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발간 기관으로 꼽힌다. 해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인사들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실는다.

한국해양대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한 채 그룹장은 미국 브래들리대에서 산업생산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작년에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악방송 사장에 김영운 前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악방송 사장에 김영운 전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65)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악과, 한양대 대학원 국악이론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국악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강릉대 음악과 교수, KBS PD를 역임했다. 현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을 맡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서혜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첫 개방형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64)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8월 30일까지 3년이다.



경기여고와 연세대 도서관학 학사, 연세대 문헌정보학 석·박사 출신인 서 신임 관장은 현재 제6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신라대학교 종합정보센터 소장·도서관관을 8년간 역임하는 등 도서관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김소희 기자 ksh@](#)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최선주 △국립대구박물관장 함순섭 ◇국장급 전보·파견 △관광산업정책관 조현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박명순 ◇과장급 전보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김일

◆통계청 ◇4급 승진 △통계정책과 김현기 △통계조정과 송준행 △통계데이터 기획과 이주원 △사회통계기획과 정호석 △표본과 정희상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정규승

◆산단그룹 ◇신규임원(상무) 승진 △(주)두산 지주부문 류정훈

◆KG동부제철 ◇사장 △이세철 ◇전무 △경영지원본부장 광정현 △마케팅영업본

부장 박성희 △생산본부장 이승민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여영달 △경영지원실 김광열 △당진공장장 박종관 ◇상무부 △경영지원실장 우치구 △인사지원실장 문원표 △마케팅실장 윤병석 △국내사업부장 김성일 △해외사업부장 윤용석 △석판사업부장 한상무 △판매생산조정실장 엄상모 △원료구매실장 하중철 △인천공장장 이철 △기술연구소장 안병규

◆한국증권 ◇신규 선임 △김재원 구조화중금탕장 △이현모 법인영업본부 상무

◆KR투자증권 ◇신규 선임 △구조자금 운용부 부부장 이문재 △전략영업팀 부장 이상훈

◆딜로이트인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파트너 승진 △오규찬 △이선희 △최호계 ◇세무자문본부 Principal 승진 △류풍년 △윤선중

◆한겨레신문 ◇부문장(편집국) △신문콘텐츠부문장 이종규 ◇에디터(편집국) △탐사·에디터 전종휘(편집국 디지털부문) △정치사회에디터 이재명 △디지털에디터 이정국(편집국 신문콘텐츠부문) △한반도국제에디터 손원제 ◇팀장(편집국 디지털부문) △디지털영상기획팀장 최성진 △디지털뉴스팀장 박희수 ◇데스크(편집국 신문콘텐츠부문) △사회정책팀 데스크 양선아

◆헤럴드 ◇헤럴드경제 △IB증권섹션 에디터 김필수 △금융섹션 에디터 홍길용 △건설부동산섹션 에디터 권남근 △소비자경제섹션 에디터 한석희 △리얼푸드팀장 겸 컨슈머팀장 박영훈 △사진영상팀장 박해묵 ◇코리아헤럴드 △논설실장 전성우 △터인베스터섹션 에디터 겸 미래전략실 팀장 김지현

부음

▲정태용 씨 별세, 정재홍(국회사무총장 비서실장)·재준(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재형(주부)·재정(주부) 씨 부친상, 이심미·권혜숙 씨 시부상, 김동일(나라감 정평가법인 이사) 씨 장인상 = 2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3-940-8198

▲오한진(전 대전일보 편집국장) 씨 별세 = 1일, 대전 중구 대흥동 성모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042-220-9870

▲양순복 씨 별세, 한승협(대신증권 동래WM센터 차장) 씨 모친상, 서관원(LG 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 책임) 씨 장모상 = 8월 31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9월 3일 오전 9시, 052-272-111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글로벌화 빠진 혁신성장은 반쪽에 불과하다

혁신기업은 우물 안에서 약자와 싸우지 말고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 강자와 싸워야 한다. 운동경기에서 전국 체전에 머물지 않고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경기해야 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혁신성장에 있어서 혁신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성장은 소외되어 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혁신성장 보고서와 자료에서 혁신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성장에 대한 내용은 희소한 편이다. 마치 혁신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따라오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혁신은 성장을 위한 수단이며 성장은 혁신의 성과다. 그러므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혁신은 무용한 것이다. 성장을 고민하지 않고 혁신만 밀어붙이면 성장통이 온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현재 혁신성장을 두고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은 성장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어 성장하면 기존의 전통적 사업자가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제한된 시장을 놓고 혁신적 사업자와 전통적 사업자가 경쟁하는 승자(Win)와 패자(Lose)의 제로섬(Zero-Sum)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경제 논리로는 혁신을 찬양하면서 정치 논리로는 혁신을 규제하는 이율배반의 역설이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한계의 근본적 원인은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단절적 혁신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기존의 사업을 대체하는 점진적 혁신에 머물고 있다.

협소하고 과밀한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문화하여 집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넓게 펼쳐야 한다. 과거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오늘날 대기업급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라. 특히 인터넷 기업의 경우 안 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때 열광하였던 독일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살펴보자. 히든챔피언은 틈새 제품에서 남이 추종하지 못하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추구하여 성장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면 시장을 찾아 넓혀 가는 것이다. 우리 혁신기업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갈등을 피해 성장하려면 글로벌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위론적으로 들릴 수 있다. 중소

기업의 성장전략에서도 글로벌화는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정책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 수는 10만 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글로벌화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질적인 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경영진과 실무자의 국제화 경험과 지식도 미흡하며 해외시장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국제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채산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현지 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선행투자 비용이 발생하여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킨다. 무엇보다 국내 사업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율 변동, 인허가 규제와 통관, 현지국의 정치 상황 등의 리스크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험적으로 해외 시장을 타진하는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구할 때 코스트와 리스크가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봉착한다. 벤처기업이 양산 투자를 이행할 때 자금난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이 글로벌화의 확장 단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서도 수출금융의 부실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확장을 추구하면서 자체 자금뿐 아니라 정책자금까지 투입하였지만 매출 신장이 부진하여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환율변동은 또 다른 골칫거리이다.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의 KIKO(Knock-In Knock-Out) 상품에 가입했다가 변동폭이 커지는 바람에 환손실로 인하여 멸절된 중소기업이 줄지에 흑자 도산 사례도 있다.

안락한 국내시장을 나누고 험난한 해외시장에 가서 성장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빠진 혁신성장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혁신기업은 우물 안에서 약자와 싸우지 말고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 강자와 싸워야 한다. 운동경기에서 전국 체전에 머물지 않고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경기해야 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혁신기업이 글로벌화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을 벤처 지원하듯이 과감하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정상조의 생각

서울대 법대 교수

오늘 우리는 다방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 혼란, 경기 침체, 노사 갈등, 종북 논쟁 등으로 어느 지점에서나 파국을 맞이할 것 같은 심각한 위기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미국의 자국우선 보호주의와 중국의 공격적 패권경쟁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로 더욱 가속,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서 겪는 딜레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은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못한 주변국의 약점을 잘 보여줬다. 우리가 해방 이후 공업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핵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과학기술 종속의 결과인

주변국 딜레마

것이다. 각국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중심국과 뒤처진 주변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변국으로서의 과학기술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변국으로서 열심히 응용기술을 사업화해 반도체 등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수출량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일수록 점점 더 중심국의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주변국의 딜레마를 이제 현실로 직시하게 되었다.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면 주변국으로서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면 반도체 산업은 살릴 수 있겠지만, 그 바탕이 되는 원천기술 및 기초과학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1960년대 소련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 및 우주 분야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성공을 거뒀다. 소련은 군사 및 우주 분야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중심국이 되었지만, 시장 질서와 민주적 제도의 결핍으로 민간 분야 과학기술은 형편없이 뒤처지고, 30년 후 소련연방 전체가 힘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선진국 내지 중심국으로부터 사상과 제도를 수입하고 모방해서 발전했지만 주변국으로서의 한계와 극단주의에 빠져 실패하고 쇠락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수입해서 초기에 부국강병을 이룩했지만 중반부터 경직된 성리학과 사농공상의 비생산적인 질서로 과학기술은 정체되고 백성들은 지배층의 착취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선은 중국에서 유교를 수입했지만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극단주의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했다.

문제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대기업에 적폐 및 규제 대상으로 보고 추진하는 경제정책도 기계적 평등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주변국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형태의 평등주의다. 선진국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계적 평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혁신하고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임금평등 그리고 노동시간에 관한 비현실적 규제를 강화하는 주변국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변국으로서의 기술종속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인 구호로만 가능하다. 과학자들과 기업들에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각종 규제와 채찍질만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선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상과 제도 면에서 주변국으로서의 행태를 극복할 때에만 비로소 기술종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올리버 크롬웰 명언
"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중단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 청교도 혁명에서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국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통치장전(統治章典)을 발표하고 호국경(護國卿)에 올라 전권(專權)을 행사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599-1658.

☆ 고사성어 / 공자천주(孔子穿珠)
공자가 구슬을 꿰는다는 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일깨우는 말이다. 공자가 구멍이 아홉 구비나 되는 구슬을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꿰 것인지 알 수 없어 아낙에게 물으니, "찬찬히 꿀(蜜)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다. 공자는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 개미를 붙잡아 허리에 실을 묶어 구슬의 한쪽 구멍에 밀어 넣고, 반대편 구멍에는 꿀을 발라 구슬을 실에 꿰 수 있었다. 원전은 조정사원(朝廷事苑).

☆ 시사상식 / 카푸어(car poor)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차를 무리하게 사다가 수입의 대부분을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느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 생활을 즐기는 데 드는 소비성 지출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 유머 / 부모 사랑 확인 방법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빠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아빠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 엄지손가락에 뽀뽀했다. 그러자 아들이 이번에는 다섯 손가락을 째렸다. 아빠는 다섯 손가락 모두 깨물어 주었다. 그때 주방에서 일 하던 아내가 불쑥소리로 "아유! 내가 재 때 문에 못 살아"라고 소리쳤다.

아내가 덧붙인 말. "글쎄, 저 녀석이 손으로 똥구멍을 파더니 자꾸 똥새를 맡아 보라잖아."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박기영 자본시장1부/pgy@



신라젠, '한탕주의'와 '꿈의 신약' 사이

대표는 고등학교 동문의 소개로 유사수신 업체 대표를 만나 투자를 받았다. 이 전 대표를 이들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사수신업체는 벨류인베스트코리아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9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곳이다. 이

회사 대표는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중이다.

실제 신라젠은 2013년부터 이 업체들에 CB(전환사채) 등의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신라젠 내부에서도 이 투자를 받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는 후일담도 들린다.

그리고 현재의 문은상 대표는 제네렉스

인수 후 펙사백의 임상 3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다가 펙사백 임상 중단권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신라젠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높은 수익을 올린 유사수신 업체가 신라젠에서 벌린 돈을 다른 사기행각 과정에서 돌려막기에 썼다는 사실도 짚잡한 기본이 들게 한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논란을 종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상이 성공하면 된다. 그간의 행보가 세간에서 '꿈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평가받는지, 아니면 모든 노력이 단순한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시험 목적의 '한탕주의'로 폄하될지는 성과에 달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자기책임의 원칙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금리가 내려가는 요즘, 돈 굴리기가 고 민스럽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금 리를 내리면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열리 고 있다. 주요국 국제 금리가 사상 최저 기 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유럽에서는 돈을 맡기는 개인 고객에게 이자를 주기는커녕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까지 생겼다고 한다. 안전한 예금에 돈을 넣어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택하자니 규모 원금 손실 이 불가피해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 상품(DLS·DLF) 사태가 발목을 잡는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여파로 여윌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불 확실성에 투자자들은 우왕좌왕이다.

공짜 점심이 없듯, 저금리 시대에 기대 수익만큼 위험성도 크다. 선진국 국제와 같은 안전자산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 질 수 있다. 주식과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 로 한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익 발생 조건을 확실히 이해하 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 주가연계증권 (ELS)이나 DLS·DLF 등은 은행예적금 과 달리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 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한다.

올해 들어 DLS와 ELS는 월평균 판매 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박이 났 다. DLS는 월평균 2조4755억 원, ELS 는 월평균 7조4027억 원씩 팔렸다고 한 다. 지난해 대비 각각 4.9%, 5.7% 늘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 위험·고수익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

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주식시장도 약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원금손실 파생상품 논란 때문인지 이 시장이 얼어붙었다. 주가연 계증권 발행규모는 4조5888억 원으로 전 월(7조2083억 원)보다 36.3% 급감했 다. DLS 발행 규모는 7월 1조9968억 원 에서 지난달 9923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DLS 손실 논란이 8월 중순쯤부터 본격적 으로 불거진 데다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독일 국제 금리 연계 상품 만기가 이달부터 도래하는 만큼 투자 심리가 얼 어붙은 듯싶다.

눈에 띄는 점은 투자자들이 안전한 은 행예금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자니 워낙 금리 가 낮아 선뜻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2.17%를 고점으 로 꾸준히 하락하며 현재는 1.81%에 불 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중 금리 2% 이상 비중은 5.7%로 거의 종적 을 감췄다.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다 보니 0.1%라도 이자를 더 쳐준다는 곳에 눈길 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 키코 사태가 그랬고, 2016년 ELS 투

자 손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D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보수적인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 됐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개인투자 자 3654명의 투자금 7326억 원이 몰려 있 다. 1인당 2억 원꼴로 독일 10년물 국채 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번 사안의 1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 했는지 감독당국의 정확·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독일 국제 금리가 -0.7% 아래 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 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 가능한 현상으 로 봐야 할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도 필 요한 듯싶다.

2차 쟁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 칙'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소리 소문 없이 잘 팔리다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세간의 관심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 까지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상 품의 특성상 손실의 1차 책임은 어디까지 나 투자자에게 있다. 높은 수익에는 상응 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다. 다시 맞이하는 저금리시대, 투자 를 결정하기에 앞서 손익 구간과 상품 구 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용 실적을 수시 로 점검하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 야 한다.

acw@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자동차 노조와 국민 공감대

다. 바로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는 소식 이었지요.

올해까지 파업을 단행했다면 8년 연속. 파업을 응당 '하나의 수순'으로 여겨온 이 들이 이례적으로 무분규 잠정안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사 노사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노사가 공감하고 자동 차 산업의 저성장 기조에 대응한다"는 공 동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회사들입니다. 지난달 부분파업을 단행했던 한국지엠(GM) 노 조는 기어코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총 파업을 예고합니다. 6일까지를 '성실교섭 촉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사측의 적극적인 행동을 내보이지 않는다면 "전 면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 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인데요. 회 사가 지난해 거둔 성과만큼 보상에 달라 는 게 노조의 요구안입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군산공장 폐쇄라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 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가 현재 조 합원을 대신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성과 급을 요구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뜻입

니다.

르노삼성 역시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지 난해 임단협 협상을 올해 6월까지 무려 11개월이나 끌고오면서 지루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 집행부는 이미 조합원의 신뢰를 잃었습니 다. 집행부가 총파업을 선언해도 정상 출 근하는 근로자들이 속속 늘어나기도 했으 니까요. 그렇게 노조 집행부가 투쟁을 포 기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데 이 회사 노조는 다시금 강경 투쟁을 선 언합니다.

자동차산업의 저성장,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동차 뉴스 가운데 반갑고 긍정적인 뉴스는 눈 씻고 찾아봐 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대차가 무분 규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고, 강성 중으 서 강성이었던 쌍용차 노조는 10년째 무 분규 타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 성과급을 요구 중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어떤 공감대 를 나누고 있습니까. junior@

시설

정기국회 개막, 최악의 '무능 국회' 안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 일 개막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 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 19일), 대정부 질문(23~26일), 국 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예 산 시정연설(10월 22일) 등의 일정 에 합의했다. 하지만 손조로운 진행 을 기대하기 힘들고, 파행의 우려가 더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선거법 개정이 걸림돌이다. 당초 여야가 2~ 3일 열기로 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 회는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자 유탄국은 가족들의 증인채택을 양 보하겠다고 5일 후다시 청문회를 열 자고 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 부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는 일방적 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 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소명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 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수순 이다. 여야가 극한 충돌로 치달을 가 능성이 높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정 부의 지난 1년간 국정을 평가하는 국 정감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3일 513 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31조5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한 초 (超)슈퍼 예산 편성이다. 어느 때보 다 꼼꼼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경제여건 악화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주 장한다. 특히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의

멈춰 서면 예산안을 제대로 따져보 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이 최대 현안이다. 벌써 8년째 국회 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을 비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들의 애로가 큰 화학물질등록법 및 관리법 개정, 빅데이터 3법(개인정 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법) 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없다. 각종 규제의 혁파도 다급한 과 제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2만 2479건에 이른다. 그러나 본회의에 서 처리된 것은 6867건으로 처리율 이 겨우 30.5%다.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 을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마 지막 기회다. 그런데도 허송세월할 우려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든 상황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거대 야당 한 국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을 핑개치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 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 다. 이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국정을 이끄 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요하 다. 국회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 민들에게 돌아간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다급한 경제 현안과 산 적한 입법 과제부터 챙기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청문회(聽聞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회를 두고 말이 참 많다. 청문회는 '聽聞 會'라고 쓰며 각 글자는 '들을 청', '들을 문', '모일 회'이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듣고 또 듣는 회의'이다. '聽'의 왼쪽 부 분은 '耳(귀 이)'와 '임(王:짙어질 임)'이 합쳐진 모양인데 원래는 '王'이 아니라 '문(드릴 정)'으로서 발음을 나타내는 부 분이였다. '聽'의 오른쪽 부분은 '憲'의 변 형인데 '憲'은 '德(덕 덕)'과 같은 글자이 다. '憲'은 '眞(참 진)+心(마음 심)'의 구 조로 이해하기도 하고, '直(곧은 직)+心' 의 구조로 보기도 한다. 둘 다 의미가 통 한다. 진심(眞心:참된 마음)이든, 직심 (直心:곧은 마음)이든 그게 바로 '덕(德= 德)'이기 때문이다. '聞(들을 문)'은 '문 (문 문)+耳'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자로 서 "문틈에 귀를 대고 듣는다"는 뜻을 담 은 글자이다. 즉 은밀한 이야기까지 포함 하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란 말은 다 듣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문(所聞: 들리는 바)'에는 '청(聽)'을 쓰지 않고 '문(聞)'을 쓴다. 그러므로 청문회의 '청 문(聽聞)'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심 (眞心)과 직심(直心)과 또 그 사람과 관 련되어 떠돌아다니는 모든 소문까지 다 확인하여 듣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 게 듣는 회의가 바로 청문회이다. 그러므 로 네이버 국어사전도 청문회를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 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여 는 회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청(聽)과 문(聞)이 가진 뜻으로 봐도 그렇고 국어사전의 뜻풀이로 봐도 그렇 고, 청문회는 '듣는 회의'이니 일단은 답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어야 한다. 들으 면 될 것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니 정작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말을 못하고, 오히려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장외집회까지 열 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 참 어리둥절 한 상황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동서식품



조금씩 깊어가는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커피 한 잔에 담아봅니다

올 추석, 맥심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Maxim
커피라는 행복